

【해설】
부동산시장 담합 실태
입주민은 '집값 올리기'
중개소는 '수수료 면제'

03



Economy

코스피	2338.88	(-4.19)	코스닥	816.53	(-5.74)
금리 (최근 30일)	2.02	(+0.02)	환율 (환/달러)	1111.80	(+2.50) <1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공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8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 64위에 6·25 참전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중고차·증권 접고, ADT캡스·암팩·AJ렌터카·동양매직 인수

최태원의 딥체인지, SK 날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SK그룹 회장)

SK그룹

해운업 설립 36년 만에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중

보안업체·렌터카 인수로
신사업 강화·혁신 고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 비전인 '딥 체인지(근본적인 혁신)'를 위해 조용한 사업재편으로 혁신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해운, 중고차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사업은 접는 대신, 바이오, 모빌리티 등 뜨는 사업을 키우는 식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SK해운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불황의 늪에 빠져 '알던 이'였던 해운업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SK그룹은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 지

36년 만에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SK그룹 관계자는 "한앤컴퍼니 측과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투자유치와 관련,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SK해운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391%, 차입금은 4조4000억원이다.

SK해운이 매각되면 SK그룹의 사업 재편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SK그룹의 인수합병(M&A) 전문가로 꼽히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국내 2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주요 행보)

인수	매각
SK바이오텍(바이오), 2016. 2	SK해운(해운업, 36년), 협상중
동양매직(가전렌탈), 2016. 9	SK증권(증권, 26년), 2018. 7
LG실트론(반도체), 2017. 1	SK엔카 직영(중고차 오프라인 사업, 18년), 2017. 11
AJ렌터카(모빌리티), 2018. 9	

위 물리(충동)보안업체 ADT캡스 인수를 완료하며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SK그룹은 지난 3월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 간 총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핵심소재와 5세대(5G) 인프라,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이 주요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ADT캡스 인수 역시 이 같은 신사업 투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바이오, 제약 부문에서도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SK는 최근 미국 바이오·제약 위탁 개발·생산 업체(CDMO)인 암팩(AMPAC)의 지분 100%를 51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해외 제약 회사 M&A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SK그룹의 사업 개편은 홈케어와 모빌리티에서도 두드러진다. 최태원 회장이 수장인 SK네트웍스는 모빌리티와 홈 케어로 사업

방향성을 잡고 사업 재편을 이어가고 있다. SK는 중고차 오프라인 사업인 SK엔카 직영을 지난해 정리하는 대신, 국내 3위 렌터카 업체인 AJ렌터카를 인수기로 지난달 21일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와 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1위인 롯데렌탈과 비슷해져 업계가 양강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SK렌터카가 SK주유소, 스피드메이트 등 차량관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인장기렌터카 사업에 주력해왔다면, AJ렌터카는 30년 이상의 사업 운영을 통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클 것으로 보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에는 동양매직(현 SK매직)을 인수하며 홈케어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기도 했다. SK매직은 SK그룹 계열사가 된 이후 지난 7월 말 기준, 렌탈 누적 계정 145만을 돌파하는 등 렌탈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분기에 1615억원의 매출을 올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하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과거에는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본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증정했다면 현재 SK그룹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 관점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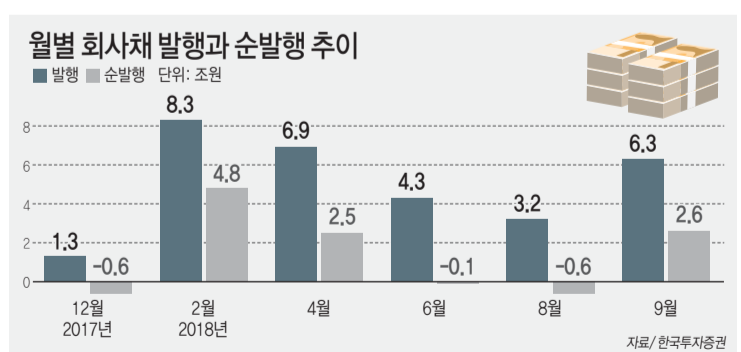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산업개발, SKC, 한화토탈 등 회사채 노크

금리인상 전 자금조달 나서는 대기업들

지난달 6.3조 회사채 발행을
들어 세번째로 규모 커
SK종합화학 등 발행 계획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삼성SDI는 3년 만에 회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삼성SDI는 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총 1조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자금이 몰렸다. 결국 5900억원으로 자금 조달을 늘렸다. 뛰어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번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모두 삼성SDI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5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총 2260억원의 수요를 확보했으며 4.52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결국 발행금액을 85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개별민평금

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공모채 발행을 확정했다. 한화건설은 현재 BBB+(안정적) 신용등급임에도 불구하고 A급 건설사 수준의 흥행을 이뤘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기업이 자금 조달을 서두

르고 있다. 지난 9월에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데 이어 10월에는 SK종합화학, 메리츠증권증권, 현대산업개발, SKC, AJ네트웍스, 한화토탈, 만도 등이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의 묻지마 회사채 투자가 한몫했다. 대기업 계열의 회사채는 물론 'B'급 회사채까지 나왔다 하면 안판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 탄탄하거나 든든한 돈줄(매출처)이 있는 기업은 자금블랙홀로 통한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6조3000억원 규모다. 2월 8조3000억원, 4월 6조9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순 발행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AA등급 이상 우량기업 중에는 삼성SDI, 미래에셋대우, 롯데케미칼, 포스코대우, SK이노베이션, 한국증권금융, SK텔레콤, SK루브리컨츠 등이 수요예측에 나서 모두 오버부킹을 기록, 대부분 금액을 늘려 발행했다. 발행 금리도 모두 개별민평보다 낮게 결정됐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많았다. LS전선, 한화건설, 롯데건설, 동원엔터프라이즈, E1, GS글로벌, 한진, 한국토지신탁, 세아창원특수강, 포스코건설, 금호석유화학,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풀라리스스위프, 여천NCC, 두산중공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 대체로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한화건설이 개별민평 대비 75bp(1bp=0.01%포인트)나 낮게 결정

되는 등 최근 건설주의 고금리 매력에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9월 예상을 뛰어 넘는 회사채 발행으로, 상대적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회사채 발행이 줄어드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요기반 측면에 있어서는 연말을 앞두고 시장에 나올 물량이 제한적인 전망이다. 발행시장을 중심으로 한 만기보유기관의 크레딧채권 수요가 공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 이혁재 연구원은 "우호적인 수급으로 수요예측 흥행 및 강제 발행이 예상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와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가격 부담이 유통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행 강제와는 별개로 당분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

투자·채용 줄고 M&A 스톱... 선장 잃은 롯데 “경영할수 있게”

5일 선고 앞두고 노심초사

면세점 관련 부정청탁·뇌물 혐의
檢, 1심 선고량의 5배 가량 구형
상반기 투자액 20%·채용 80% ↓
中 롯데월드 건설 2년째 중단 등
롯데, 총수 공백에 경영 ‘빨간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진영 기자 son@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1심 선고형량의 5배에 가까운 구형을 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8개월째 총수 공백으로 그룹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 투명화와 한일 롯데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작업들을 담보상태며, 투자와 채용에서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일 법정에 따르면 5일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동빈 회장과

점 특허권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구속 수감된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롯데그룹은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 투자를 비롯해 채용면에서도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롯데 그룹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약 88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감소했다. 아울러 매년 1만2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공채는 올해는 2300명 정도만 뽑아 약 80% 줄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에서 진행하던 10조원에 달하는 10여건의 투자나 인수합병 작업도 울스름했다.

롯데가 중국 선양에 추진 중인 롯데월드 건설공사가 2년째 중단됐다. 지난 2016년 11월 공사를 중단 이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롯데가 진행 중인 ‘청두 프로젝트’의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롯데가 중국에서 침체 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지만,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신 회장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롯데그룹으로서는 신 회장의 공백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신 회장의 공백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노출된 순환·상호출자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신 회장밖에 없다는 게 그룹 안팎의 시각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확립했다. 국내에서는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실시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 국내 롯데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다. 이 같은 신 회장의 구상은 신 회장이 구속되

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당시 애플 창업자 잡스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다시 사회로 나가 기업가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과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70억원을 부정 청탁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신 회장의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신 회장의 당시 사정 및 상황 등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5일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이 태국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현지 택배 1위를 목표로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다. 태국 현지 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택배를 전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동남아 ‘택배 한류’ 시동

태국서 택배사업 비전 선포식 행사
내년 5월 7만1900㎡ 물류센터 구축

CJ대한통운이 태국 현지에서 ‘2020년 택배 1위’ 달성을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태국을 교두보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택배 한류’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본사 및 태국 현지 임직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택배사업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택배사업 1위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차동호 택배부장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매년 두자릿수 성장이 기대되는 이커머스 시장과 젊고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들로 인해 그동안 태국 택배시장을 주목해 왔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태국 1위의 택배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우선적으로 내년 5월까지 태국 방나 지역에 7만1900㎡(약 2만2000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CDC)를 구축할 계획이다. CDC가 완성되면 자동화 분류장치인 휠소터를 통해 현재의 10배인 하루 최대 40만 상자의 택배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DS, 전자서명 해킹방지 암호기술 확보

삼성SDS는 세계 최초로 전자서명에 대한 부채널공격을 차단하는 해킹방지 암호기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부채널공격이란 IC칩이 내장된 신용 카드와 전자여권, 자동차 스마트 키 같은 IoT 기기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 소모량, 전자기 신호량 등을 분석해 전자서명 암호키를 빼내는 해킹기법이다.

전자서명 암호키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IC칩 등에 입력된 개인 고유의 비밀 정보값으로, 해커가 부채널 공격으로 탈취한 신용카드 전자서명 암호키를 새로

운 IC칩에 입력하면 카드 복제가 가능해진다.

IC칩 보편화와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커넥티드 카 같은 IoT 기기의 확산에 따라 부채널공격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암호기술 확보는 난제로 남아있었다.

삼성SDS의 부채널공격차단암호기술은 IC칩에 들어있는 전자서명 암호키를 삼성SDS 자체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임의의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채널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9월 수출액 506억弗... 일평균 ‘사상최대’

산업부, 일평균 작년보다 10.6% ↑
사상첫 5개월연속 500억달러 돌파

올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면서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나홀 감소와 작년 9월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지난해 대비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이 4일 줄어 최소 80억 달러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

로 사상 최대다.

1~9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450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월 일평균 수출도 22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수입은 408억4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1% 감소했다. 조업일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축소와 작년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2016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줄었다.

무역흑자는 97억5천만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28.3%), 석유제품(13.5%), 컴퓨터(5.7%) 3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 완화로 단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고사양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증가세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24억3000만 달러로 9월 전체 수출의 24.6%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단가 호조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30억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컴퓨터는 교체수요 확대와 기업용 시장 성장으로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편, 이날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직접한 김현중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9월 수출의 감소 원인인 추석 연휴가 작년에는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10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 12월에도 수출이 5% 내외의 성장하면서 월 50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반기 리스크 총력 대응으로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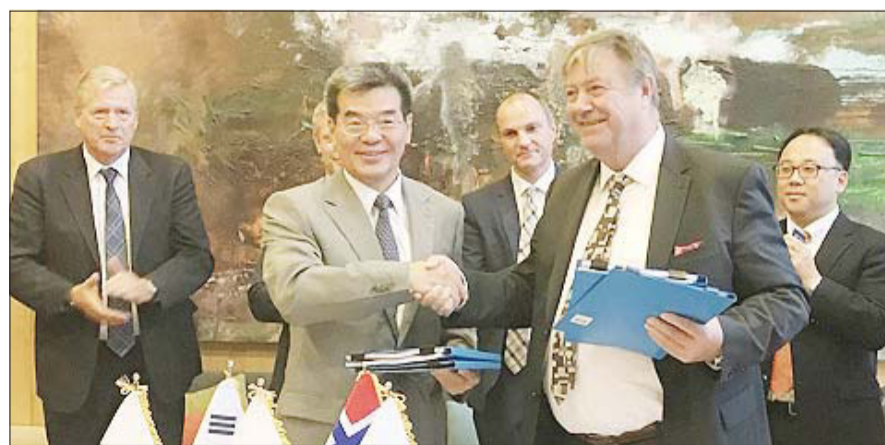
현대중, 노르웨에서 2.1억弗 수주

15만3000톤급 셔틀탱커 2척
2020년6월부터 순차적 인도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KNOT사로부터 15만3000톤급 셔틀탱커 2척을 총 2억 10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내년 상반기 울산 본사에서 건조에 들어가 2020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셔틀탱커는 길이 279m, 너비 48m, 높이 23.6m의 제원을 갖추고 선주가 원할 때 스크러버(황산화물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해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건조된다. 또 셔틀탱커의 주요 장치인 스텔러스터(해상에서 석유를 선적하는 동안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와 카고 펌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류배전방식(DC GRID)을 적용하게 된다.

KNOT 측은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에 셔틀탱커 첫 호선을 맡긴 이후 지금까지 총 9척의 셔틀탱커를 발주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앞줄 왼쪽)과 트리그베 세그렌 KNOT 사장(앞줄 오른쪽)이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이번 수주 계약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3분기 기준 수주 실적은 총 129척, 10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사상 부문 목표인 132억달러의

79%에 해당한다.

선종별로는 LNG(액화천연가스)선 16척, LPG(액화석유가스)선 12척, 에탄올반선 3척, 컨테이너선 47척, 탱커 47척 등을 수주했다. /경연우 기자 yw964@

입주민은 '집값 올리기' vs 중개업소는 '수수료 먼저'

부동산시장 담합실태

〈中〉 집주인과 중개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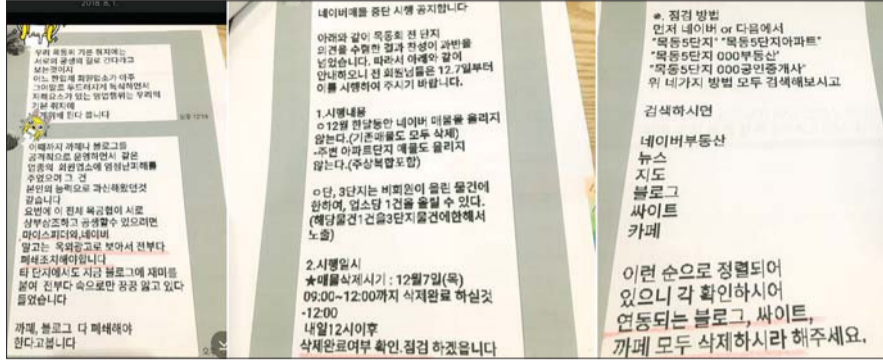
물밑 집값 담합, 색출하는데 난항
부동산 카르텔 조성에 호가 맞추거나
입주민들이 집값 올리려 담합하기도

'몰 들어올 때 노 젓는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 행태에 대해 이 같이 표현했다. 집값 급등세를 기회 삼아 담합을 통해 시세차익 등 개인의 이익을 노리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선 단체 행동과 제보 등이 잇따르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9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

1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일주일(7~13일)에 비하면 44.3%(2401건)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자 가격을 조정하던 일부 세력들이 일단 꼬리를 내린 것



서울 양천구 목동의 부동산 연합회가 회원사들에게 돌린 문자 내용. /제보

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선 집값 담합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물밑에서 이뤄지는 만큼 색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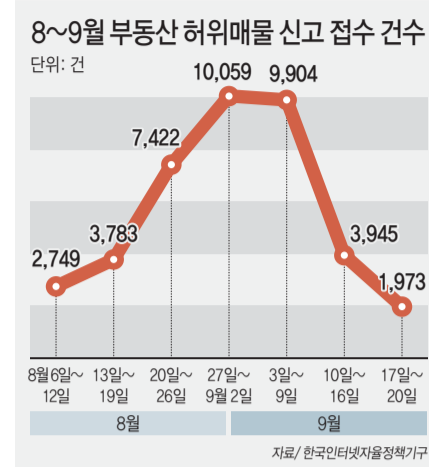
일부 지역에선 입주민이 여전히 호가 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등을 통해 호가를 올리고,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A아파트 소유자들은 700여명의 단톡방을 만들어 '부동산중개업소가 호가가 부당스러운지

15억원 이상(30평대) 물건들은 추천을 안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압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일부 입주민은 "이방에 계신 분들 허위매물 신고 협조 부탁드립니다"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A아파트 84㎡형은 지난달 13억6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2~3주만에 1억원 이상 호가를 올리려는 시도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원선으로 분양가에 비하면 이미 세 배 가량 집값이 된 상태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동탄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5



억원 안팎에서 계약이 체결됐으나 입주민들은 6억~8억원 선의 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동탄이 투기자들이 많아서 거품이 심하다"며 "입주민 등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호가를 올린 영향이 있다"는 평이 나왔다.

◆부동산끼리 카르텔... '내멋대로 호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담합도 적폐 중 하나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계약 체결 등을 위해 '카르텔(기업연합)'을 조성,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집값을 낮게 불러 매수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여러 단지 간 연합회가 결성돼 공동의 지침을 내려 이를 어길 경우 공동중개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부동산들이 담합해 매매가 된 물건에 대해 거래 완료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 최근 거래가를 알 수 없게 한다"며 해당 연합회 회원사들에 전달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매물을 거둬들여라', '삭제 여부를 확인·점검하겠다' 등의 지시 및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인천 서구 청라 B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나왔다.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입주민은 "B아파트의 경우 일부 단지가 3년간 가격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 연합들이 호가 1000만원도 비싸면 안 나간다고 올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C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허위 매물 신고에 나섰다. 한 입주민은 "현재 네이버에 등록된 60~70개 매물도 주민들 허위 매물 신고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며 허위 매물 신고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全 금융권 DSR 도입... 대출억제·건전성·금리인상 '삼중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행·상호금융, 가계대출 어려워
주담대 급격한 신용 위축 우려도

은행과 상호금융(농·수·축협 등), 보험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DSR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은행권은 이를 관리지표로 활용해 가장 간간하다는 대출규제의 효력을 본격 발휘하게 된다.

강력한 대출규제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이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힘든 시기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이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달 30일부터 DSR을 도입했고, 저축은행과 여신사도 이달 중 DSR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출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신DTI 도입

2017.12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변경 예고
2018. 1월 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시행

DSR 도입

2018.1분기 은행권 DSR 시범 운영
2018.3분기 2금융권 DSR 시범 운영
2018.4분기 은행권 관리지표로 활용
2019.2분기 2금융권 관리지표로 활용

자료/금융위원회

의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등 상환능력을 따진다.

DSR은 한 발 더 나가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지표다. 대출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의도다. DSR이 50%라면 한 해 소득의 절반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얘기가.

지난 3월 26일부터 6개월간 DSR을 시범운영한 은행은 이달 중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중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해 대출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승인한다.

이제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내놓을 DSR 규제방안이다. '위험대출'인 고(高)DSR의 기준, 고 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 등이 정해진다.

당초 고 DSR의 기준으로는 80% 안팎이 거론됐다. 소득의 대부분인 80%를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만큼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무작정 낮추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DSR의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강력한 만큼 고 DSR의 기준을 너무 낮추면 대출이 일시에 줄어 실수요자는 물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같은 대출이라면 담보가 확실

한 주담대를 신용대출보다 우선시해 급격한 신용위축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역시 자본규제로 가계대출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고 LTV 주담대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예대율(대출금/예수금)도 가계대출 가중치가 올라간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규제와 함께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도 부담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연 1.5%로 동결됐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상단 기준 연 4% 중반까지 상승하며 연내 5%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633억원 지난해 규모 넘었다

주춤하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피해액이 이미 작년 한 해 규모를 넘어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633억원으로 2017년 연간 피해규모인 2431억원을 웃돌았다.

피해자 역시 3만명으로 작년 한 해 3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16명이 10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금융원은 10월 한 달간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2만여 개 금융사 점포에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집중 실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윤석현 금감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각 금융협회장과 은행장 등이 모인 가운데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발족식을 열었다.

윤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강도, 폭행 등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기임을 인식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원은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지방아파트 입주 안해"... 중도금 보증사고 1000억 돌파

HUG, 시장 양극화로 악성 미분양
서울 집값 잡기 급급... 지방 소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이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액은 2016년 415억원에서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들어 8개월 만에 1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년에서 2018년 8월간 서울 지역 사고액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 원 가량 감소한 반면,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억원에서 843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으나, 2018년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업계에선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완전분양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며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역시 김지완’ 수익·신뢰 두토끼... 지역뱅크 넘어 ‘글로벌’

금융 다이제스트



KB국민은행

개인 IRP 자동이체 이벤트

KB국민은행은 1일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연말정산의 정석!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동이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18년 9월 말 기준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11월 말까지 매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신한생명

변액보험 신규펀드 3종

신한생명은 개인별 위험 성향과 투자 목적을 반영한 3종의 신규 펀드를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변액보험에 탑재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신한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일부터 펀드변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설정된 펀드는 '스마트 자산배분형 30·50·70' 펀드다. 위험자산의 최대 비중을 기준으로 30% (안정형), 50% (성장형), 70% (공격형)의 3가지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국의 증시와 원자재, 스마트 베타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외 채권형 펀드 등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위험자산 최대비중에 따라 펀드 형태를 구분해 고객이 개별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삼성화재

‘애니핏’ 포인트 더블 적립

삼성화재는 10월 한 달간 자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 포인트를 두 배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애니핏은 걷기, 달리기, 등산 등 운동 목표 달성 시 모바일 쿠폰 구입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결제에도 포인트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신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약 300만명에 달하는 삼성화재 건강보험 고객 모두에게 제공된다. /김희주 기자

BNK금융 김지완 1년

조직 재정비·인사단행 등 조직정상화로 투명성 강화
상반기 순이익 3576억원
전년비 8.1% ↑... 업계 1위

“사람이든 조직이든 성장통을 겪게 마련이다. 은행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을 위해선 모든 이가 수급 가능한 그룹 경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김 회장이 BNK금융의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1년 간의 BNK금융과 김 회장의 미션은 ‘조직정상화’와 ‘수익다변화’를 통한 실적 견인이었다. BNK금융은 채용비리와 주가조작 파문 등으로 떨어진 그룹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칙과 투명경영’을 통한 체질개선에 진력했다.

‘고인 물’이 아닌 외부출신의 김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의 융합, 자회사 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실적호조를 창출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건강한 조직, 경쟁하는 조직, 공부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 BNK금융은 최고경영자(CEO) 한 사람의 역할과 비전이 얼마만큼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혁신과 조직 정상화

BNK금융은 지난해 9월 말 김 회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원칙과 투명경영’을 통한 조직의 ‘정상화’에 힘썼다. 엘스티 사건과 자사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경영진이 중도 퇴진하면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회장은 그룹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BNK금융의 2017년·2018년 상반기 실적)

구분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307억원	3576억원
이자이익	1조1339억원	1조1689억원
수수료이익	874억원	1103억원
총자산이익률	0.71%	0.78%
자기자본이익률	9.59%	9.80%

◀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김지완 BNK금융회장. /BNK금융

앞서 김 회장은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은행 중심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즉시 부산은행장과 지주 및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또한 전결권 하부이양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백년대계위원회’ 출범과 그룹 감찰반과 그룹감사총괄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조직 정비와 인사단행에도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지주는 그룹의 주요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매트릭스체제를 도입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시너지 사업을 맡을 시너지추진부와 글로벌사업지원부, 디지털사업지원 등도 신설했다.

◆지역경제내에도 호실적 견인

올해 상반기 BNK금융의 순이익은 3576억원으로, 지방금융지주사 중 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1년간의 BNK금융 지주의 실적은 안정적인 상승곡선을 그렸다.

순이익이 작년보다 8.1%(269억원) 증가했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

(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07%포인트, 0.21%포인트 개선된 0.78%, 9.80%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 경기 부진에도 핵심이자 등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선방했다. 이자이익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9% 확대된 1조1689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26.2% 오른 110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계열사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 융합과, 비금융 및 ICT기업과의 시너지 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금융(CIB)과 자산관리(WM) 부문도 확대했다. 또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비은행부문과 비이자 부문도 강화했다.

그룹 CIB부문에서는 ‘부울경 CIB센터’와 서울CIB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항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항공공사와 함께 항공 MRO 신설법인에 출자했다. 그룹 WM부문에서는 대체투자상품 라인업 강화, 종합자산관리솔루션 제공, 은퇴금융 경쟁력 강화 등 신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사의 성장도 눈에 띈다. 지난 3월 2000억원 증자를 통해 중형 증권사로 발돋움한 BNK투자증권은 상반기 조정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억원 증가한 352억원을 시현했다.

BNK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100% 자회사로 전환, 300억원 자본확충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국내 일반주식형 공모펀드 1년 성과기준 톱 5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디지털역량 부문에선 지난 5월 디지털혁신센터를 개소해 동남권 기반의 그룹 디지털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부문은 은행권을 제외하고도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 3개 현지법인이 현지화 영업 등 기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한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원칙과 명분이 통하고, 상식이 일반화된 건강한 조직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금융지주사 올 상반기 순이익 7.7조원 이익 의존도 은행·금융 투자사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하나, KB, 농협,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의 상반기 연결당기순이익은 7조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지난 2011년 7조6161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권역별로는 은행(4조4425억원→5조1795억원) 및 금융투자(1조818억원→1조3079억원)가 증가한 반면, 보험(5674억원→4955억원) 및 비은행(1조2521억원→9643억원)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익의존도는 은행과 금융투자사에 대해 높아졌다. 이익의존도는 은행 65.2%, 금투 16.5%로 작년 각각 60.5%, 14.7% 대비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2006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5% 증가했다.

권역별 증가규모는 은행 69조1000억원(+4.8%), 금투 24조7000억원(+13.4%), 보험 4조8000억원(+2.8%),

비은행 5조4000억원(+5.1%) 등이 다.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비율은 각각 14.49%, 13.11%, 12.56%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20%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0.77%로 기업 경영 정상화 등으로 전년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증가해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전년 말 103.86%에서 114.75%로 높아졌다.

금융지주의 전체 임직원 수는 11만 5063명으로 전년 말 대비 230명 늘었다. 신규채용은 올해 하반기 중 274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실적은 은행회사의 순이자마진 상승과 금투 회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 등으로 개선됐다”며 “금융지주회사들이 무분별한 외형경쟁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창립 11주년 기념식

“디지털생태계 초연결로 시장 선도”

‘딥체인지 1.10.100’ 키워드 제시

“디지털 생태계의 초연결(Hyper Connect)을 통해 시장을 이끄는 리더 기업으로 진화하자.”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11일 신한페이(FAN) 론칭, 초개인화 국내 소비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사장은 기념식에서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 키워드로 ‘딥체인지(Deep Change) 1.10.100’을 제시했다.

먼저 임 사장은 디지털 생태계 초연결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Only1’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본업인 지불결제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도권을 강화하고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통한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 플랫폼 ‘마이샵’과 외부 스타트업과 연계한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과 동반성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금융 라인업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 광고(Ad-Tech), 미디어데이터 산업, 글로벌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한계없는 비즈니스



신한카드는 을지로 본사 강당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래 청사진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의 Only 1’, ‘새로운 미래 10년’, ‘꿈의 일터 을지로 100번지’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한카드

영도 확장을 통해 미래 10년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본사가 있는 을지로 100번지를 꿈의 일터로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딥워킹타임(Deep Working Time),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몰입을 극대화하고 창의와 강한 실행 조직문화를 조기 정착하기로 했다.

임 사장은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 만 변화를 주도하면 ‘리더’가 된다”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의 Only 1’, ‘새로운 미래 10년’, ‘꿈의 일터 을지로 100번지’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SK이노베이션, 美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터 잡는다

2~3곳 후보지 놓고 경제성 검토
美 공장, 선 증설 후 수주 전략
한국·유럽·中·美 4각 편대 구성
글로벌 배터리 시장 몸집불리기



SK이노베이션 엔지니어가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내 2~3곳을 후보지로 놓고 경제성 등을 검토하며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와 생산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공장 건설은 중국, 유럽과 함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한 시장임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수주 후 공장 증

설을 해왔지만 이번 미국 공장은 수주보다 먼저 증설하겠다는 '선 증설 후 수주' 전략을 선택했다.

이번 미국 공장 건설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함께 한국, 유럽, 중국, 미국에 4각 편대를 구성하게 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헝가리 코마름에서 첫 번째 해외 생산공장 착공에 돌입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중국

장쑤성 창저우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헝가리 코마름 배터리 공장은 오는 2020년 초부터 유럽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중국 장쑤성 배터리 공장 또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2020년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장쑤성 공장은 약 30만㎡(약 9만평) 부지에 7.5GWh 규모

를 갖췄다. 일반 전기차 연산 25만대 분량이다.

이번 미국 생산공장까지 짓게 되면 올해에만 세 곳의 해외 배터리 공장을 건설, 미국·중국·유럽에 각각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자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셈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도 선두 그룹이 치고 나가면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어렵다"며 "배터리 산업도 '리소스 인텐시브(자원 집중형)'라서 장벽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초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장을 선점하고 자본력이 갖춰지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1~7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8% 증가한 315.4MWh로 조사됐다. 시장점유율 또한 전년 동기 1.3%에서 2%로 늘었다.

SNE리서치는 니로 PHEV, 기아 쏘울 BEV, 아이오닉 PHEV 판매 증가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성장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C랩 개발한 저시력 장애인용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시각보조 앱 '아시아 혁신' 금상

저시력 장애인 TV시청·독서에 도움

삼성전자가 저시력 장애인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보조 앱 '릴루미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 광고제인 '스파이크스 아시아의 혁신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스파이크스 아시아는 칸 라이언즈 주최사와 영국의 미디어 그룹 헤이마켓이 공동 주최한다. 필름, 모바일, 디자인, 혁신 등 21개 부문으로 나눠 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중국 등 26개 국가에서 4000여명의 광고 캠페인이 출품돼 경연을 벌였다.

스파이크스 아시아의 혁신 부문은 디

지탈 기술의 혁신성과 창의성,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다. 릴루미노는 누구나 손쉽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 VR을 통해 시각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릴루미노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저시력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에서 개발한 릴루미노는 저시력 장애인들이 집에서 TV 시청과 독서를 할 때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릴루미노 앱은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VR에서 작동시켜 사용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S전선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 초고압 케이블 공급

LS전선이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초고압 케이블을 잇따라 공급한다.

LS전선은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외르스테드와 '훈시 프로젝트 2'에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400kV 프리미엄급 케이블 등 약 350km의 초고압 케이블을 오는 2021년까지 공급한다.

훈시 프로젝트는 영국 동부 근해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1, 2가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완공되면 총 2.4GW의 전력을 생산

한다. 약 2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LS전선은 이미 2016년 외르스테드로부터 프로젝트 1을 수주,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해 왔다. 특히 이번 입찰은 LS전선 외 유럽의 주요 케이블 업체들에만 입찰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케이블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속 수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럽은 물론 북미, 아시아 등에서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SKT, ADT캡스 인수 완료 "물리보안에도 4차혁명을"

AI·빅데이터 등 뉴 ICT 기술 도입
보안 솔루션으로 선진국 진출 기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SK텔레콤

SK텔레콤이 1일 국내 2위 물리(출동)보안업체 ADT캡스 인수를 완료하며 '인공지능(AI) 보안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을 표명했다. 지난 5월 인수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SK텔레콤은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ADT캡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채를 포함하면 총 인수 가격은 약 2조9000억원이다. SK텔레콤은 ADT캡스 지분 55%와 경영권을 확보했다.

SK텔레콤과 맥쿼리는 지난 5월 ADT캡스의 기존 주주인 칼라일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인수 후에도 ADT캡스 사명과 서비스 브랜드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조직과 경영진은 곧 개편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새로운 보안 시장을 만들고 기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보안 시장은 구글·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4차산업혁명 경쟁터"라며 "영상보안기술·AI·IoT·빅데이터·5G 등 뉴 ICT 기술을 ADT캡스에 도입해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보안 사업 시너지를 위해 SK텔레콤 자회사인 물리보안 사업자 NSOK을 ADT캡스와 합병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으로부터 NSOK 지분 100%를 인수한 뒤 올해 안으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한 박정호



사장은 ADT캡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NEC와 안면·지문 등 생체인식 분야에서, 히타치와는 건물 관리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은 보안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ADT캡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보안 수요가 높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새 비즈니스 모델도 도입한다. 건물 보안·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DT캡스는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더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형 매장 보안 관리,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장 관리 등 시설 보안 서비스도 검토중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로봇이츠 이동로봇 자율주행 개발 맞손

LG전자가 서비스로봇 솔루션업체인 로봇이츠와 공동으로 이동로봇의 핵심부품인 자율주행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LG전자와 로봇이츠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로봇이츠 사옥에서 로봇이츠 김병수 대표, LG전자 H&A스마트솔루션사업담당 류혜정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의 자율주행모듈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자율주행모듈은 이동로봇에 사용되는 핵심 구동모듈이다.

LG전자 CTO부서 로봇선행연구소는 지능형 내비게이션 기술을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로봇이츠는 자율주

행모듈의 구동부, 모터제어기 등 하드웨어 개발을 맡게 된다.

로봇선행연구소는 지난해 6월 지능형 로봇의 선행연구를 위해 CTO부서 산하 컨버전스센터 내에 설립된 조직이다.

1999년에 설립된 로봇이츠는 로봇솔루션 및 교육용 로봇 분야에서 제이, 센서 모듈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모듈관리 프로그램, 로봇구동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로봇 관련 역할을 하는 동력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를 독자 개발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



LG전자가 선보인 다양한 'LG 클로이' 로봇 제품들. /LG전자

추에이터'는 로봇의 유연성을 높이고 활동반경을 넓혀준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로봇이츠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로봇이츠의 지분 10.12%를 취득한 바 있다.

/안병도 기자

조현준, 세계 섬유 1위 굳히기... 300조 中시장 현장 행보

〈효성 회장〉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18’

글로벌 21개 고객사와 동반 참가 연 5% 성장 中의류시장 공략강화 지속개발·혁신 등 역량집중 강조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세계 섬유 시장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효성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조현준 회장이 글로벌 21개 고객사와 함께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섬유 전시회 ‘인터텍스타일 상하이(Intertextile Shanghai) 2018’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조현준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매년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연 300조원 규모의 중국 의류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올해 초 베트남과 인도를 방문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과 사업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계 최대 섬유 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가운데)이 상하이에서 개최된 섬유 전시회에서 글로벌 고객사 부스를 찾아 섬유시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있다.

/효성

인 중국에서도 리딩기업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직접 참석했다.

전시회에서 조 회장은 중국 의류시장 이너웨어, 스포츠의류, 캐주얼의류 각 부문에서 1, 2위를 달리는 브랜드 마니폼(Maniform), 안타(Anta), 이션(Yishion)을 만나 고객과의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분

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맞춤 마케팅활동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의류산업 시장은 약 1조7970억위안(유로모니터 2016년 말 기준·약 300조 원) 규모로 연 평균 5% 이상 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 섬유업체 아타이, 베트남 직물염색업체 흥엔 등 21개 글로벌 고객사와 동반 참가해 고객사의 영업활동과 상담을 지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올해 2월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사업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스판텍스 공장 건립 관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8월에는 위안자진 중국 저장성 성장을 만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효성에서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효성티앤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세 가지 테마 중심의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첫 번째 테마인 ‘다양한 기능의 복합’에서는 에슬래저룩을, 두 번째 테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서는 페트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원사 마이판 리젠으로 제작한 의류를 각각 선보였다. 또 ‘패션의 끝’에서는 프랑스 벨리로디와 협업해 2020년 봄여름 트렌드를 반영한 원단을 전시했다.

현재 효성티앤씨는 30개국 100여곳의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취저우·자싱·광둥·주하이와 베트남 스판텍스 공장에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조 전 부문에 걸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제어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높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차, 전기차 시승고객 전비왕 가린다

〈電比王〉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하남서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신규 출범

현대자동차가 10월부터 자사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과 현대 모터스튜디오 하남에서 전기차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전비왕을 가리는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규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및 하남이 새롭게 선보이는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는 방문 고객이 현대차의 전기차(코나 EV 또는 아이오닉 EV)를 타고 정해진 시승 코스를 우수한 전비로 주행할 경우 상품을 제공하는 친환경 테마의 시승 프로그램이다.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에 참가하는 고객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및 하남 주변의 약 15km로 구성된 시승코스를 주행한다. 현대차는 시승차량의 계기판에 기록된 ‘평균 전비’를 기준으로 매달 각 거



현대 모터스튜디오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론칭.

점과 차종별로 최고 전비 기록자 3명을 선정해 총 12명에게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

KT, AI 기반 가상발전소 기술 공개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VPP 기술 적용한 도시 모형 통해 차별화된 기가 에너지 세상 소개

KT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KT 에너지사업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KT 전시관은 GIGA인프라와 ICT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KT 기가 에너지 서비스 소개를 통해 KT가 꿈꾸는 에너지 기가토피아 세상을 연출한다. 세부 전시는 ▲KT-MEG 플랫폼 기반의 미래 가상발전소 모형을 중심으로 ▲GIGA 에너지 매니저 ▲GIGA 에너지 DR ▲GIGA 에너지 켄 ▲GIGA 에너지 차지 ▲GIGA 에너지 트레이드 등을 소개하는 코너로 구성된다.

KT-MEG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엔진 ‘이브레인’이 탑재된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이다. KT-MEG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되고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들을 최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가상발전소 기술을 대형 모니



KT 전시관 조감도.

/KT

터를 통해 보여준다. 관람객은 가상발전소(VPP) 기술을 적용한 도시 모형을 통해 미래 에너지 세상을 볼 수 있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는 공장, 빌딩, 프랜차이즈 사업장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알아내고, 비용을 절감해 준다. KT는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 후 적정 계약전력으로 변경하는 기본요금 절감과 설비의 최적 운영을 통한 추가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기가 에너지 DR는 고객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절감요인을 파악한 후 아긴 전력을 전력거래소(KPX)에 등록하고 감축이행관리를 지원한다. 기가에너지 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구축에서 운영·관제서비스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가 에너지 차지는 전기차를 활용한 EV-DR, V2G 등 미래기술을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장소를 안내하고 예약,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차징메이트도 사용해 볼 수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이노텍,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개최

LG이노텍이 지난달 28일 서울과 청주 지역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 체험교실’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과학체험 교실은 LG이노텍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UV LED, 열전 반도체 등 최신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실험 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아이들의 실험을 돕기 위해 LG이노텍 석·박사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동작구 2개소에서 총 8회 열었던 과학체험 교실을 올해는 광주, 구미, 안산, 파주, 청주, 오산 등 전국 8개 지역에 걸쳐 총 48회 개최했다. 과학체험 교실에는 LG이노텍



9월 28일 LG이노텍이 서울시립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을 개최했다.

석·박사 연구원 50여 명이 강사로 나섰으며, 참여 학생은 160여 명에 이른다.

서울과 청주에서 열린 이번 과학체험 교실은 ‘청소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강의와 실험 키트 만들기, 퀴즈 맞추기 등이 진행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스마트폰으로 조명 밝기 조절... IoT 조명 선보

LG유플러스-대진디엠피 사물인터넷 방등·거실등 출시 100%~15%까지 1% 단위 조절

LG유플러스는 LED 조명 제조 기업 대진디엠피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조명 ‘IoT 방등’ 및 ‘IoT 거실등’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IoT조명은 LG유플러스 홈IoT 플랫폼에 대진디엠피 LED 조명을 연동한 IoT 상품이다. 이 제품은 ‘IoT@home’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명 전원과 밝기 등을 원격으로 제어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IoT조명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할 수 있다.

IoT조명은 스마트폰으로 조명 밝기를 100%에서 15%까지 1%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눈에 편안하게 맞는 밝기를 찾아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분위기에 맞는 조명 연출이 가능하다. 또 자연 채광에 따라 밝기를 조절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제품은 다른 홈IoT 기기들과 서로 연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oT속면알리미가 잠이 든 것을 감지하면 IoT조명과 TV가 자동으로 꺼지는 취침모드가 작동해 숙면을 돕는다. ‘동시실행’ 기능을 활용하면 IoT조명 및 IoT멀티탭에 연결된 가전 등 여러 기기를 함께 끄고 켤 수 있다.

/김나연 기자 silkni@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일주 중!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 안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전세계 220여 개국에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멀티 리자드형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4일까지 홍콩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0886회'를 총 3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연 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추가 리자드 옵션에 따라 모든 기초자산이 설정 이후 6개월간 최초 기준가의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연 5%의 수익을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연장

NH투자증권은 모바일증권 브랜드 '나무'의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2019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벤트 대상은 '나무'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가운데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고객이며, 유관기관 제비용은 제외다.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가져온 고객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타사대체입고'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규계좌 개설 후 2다음주까지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매주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주식 첫 거래'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예약원 등 7개 기관-부산시

시민제안 홈페이지 개설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지역 7개 이전 기관과 부산시는 1일부터 정부 중점 추진 정책인 부산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시민들의 제안을 공모하는 '시민 제안 홈페이지'를 공동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참여하는 7개 이전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順) 등이다.

'시민 제안 홈페이지'는 기관별 홈페이지 내 링크 혹은 주소 입력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기관 업무 소개, 상생협력, 지역발전 등 제안 가능 분야별 안내, 제안 작성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업지 기자

지분율↑ 배당성향↓... 기관이 좋아할 주식 사라

증시에 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바람

국민연금, 저배당·관리기업으로 남양유업·현대그린푸드 등 꼽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 책임 원칙)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 확대 여지가 있고,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가 유망하다는 것. 지주사 역시 대표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수혜주로 꼽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임명되던 지난 7월 30일 도입을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증시의 활인요인으로 거론돼 온 '낮은 배당성향'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정책 등의 주주권을 우선 행사하고, 2020년까지 미개선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발족해 주주권 행사시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7대 원칙>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2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3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해야 한다.
원칙4	투자 대상 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하이투자증권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135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큰 변화다. 아울러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223개 자산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7% 남짓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으면서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배당성향 확대에 따라 주가가 가치 재평가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올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꼽은 바 있는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꾸준한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배당성향은 6.2%에 불과하다. 코스피 평균(16.02%)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도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우기술을 추천하며 "다우기술의 최대주주는

김익래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우데이터라는 상장사인데 그동안 지배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는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을 빼먹을 수 있다는 시기가 있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의결권 강화부터 시작해 오너중심적 경영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할인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12%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주 중에서는 지주사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주사 역시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한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롯데지주, 오버행(잠재적인 과잉물량 주식) 해소 및 지배구조 변환 가능성이 큰 삼성물산 등을 추천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건설기능인 양성·취업연계 'LH 소명터'

LH, 교육생 26명 선발·입교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젊은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LH 소명터'를 설립했다.

1일 LH에 따르면 'LH 소명터'는 '작은(小) 명장들의 키움터'라는 의미로, 지난 9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청년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이들 중 26명의 1기 교육생을 선발해 지난달 28일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입교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생활밀착형 수익 공종인 타일, 방수, 단열, 도배, 창호, 소방설비 등 6개 공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LH에서 운영 중인 건설품질명장 지도하에 현장실무 중심의 기능 인력을 단기간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LH 소명터' 입교식에 참석한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앞줄 왼쪽 4번째), 김영승 전문건설협회 실장(앞줄 2번째),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사(앞줄 왼쪽 5번째), 권동현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앞줄 왼쪽 7번째) 및 1기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건설품질명장제도는 경력 10년 이상 고숙련 기능인의 손끝 기술을 활용해 주거품질을 높이고 하자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LH에서 도입한 체계다.

이 제도는 ▲주택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인력 전문교육 ▲기능인

등급제 시범운영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엔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채신화기자 csh9101@

호반건설 대표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 선정

미래에셋대우는 1일 호반건설의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KB증권과 함께 호반건설의 2019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룹 내 주력회사인 호반과의 합병도 함께 추진한다.

호반은 2017년 매출 2조 6000억 원, 영업이익 79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도 13위로 그룹 내 선두를 지키고 있다. 호반건설은 매출 1조 3000억 원, 영업이익 1900억 원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대우 기준 ECM본부장은 "합병을 통해 외형 면에서는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4분기 오피스텔 9400여실 분양

경기 2369실·서울 2151실 등 수도권에 6250실 66% 몰려

올해 4분기 전국에서 9400여 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오피스텔 규제 강화로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수도권 등 유망지역에선 꾸준히 물량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오피스텔 물량은 총 9406실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분양물량의 66% 이상인 6250실이 몰려 있다.

경기도가 2369실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며 이어 서울 2151실, 인천 1730실 등이다.

이외 지방에서는 대구(1291실)와 울산

(1116실) 부산(749실)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이는 수도권에서 1분기 1만8848실, 2분기 2만1775실, 3분기 1만3121실이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탓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는 꾸준히 분양물량이 나오고 있다.

올해 1~3분기까지 유망지역에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았다.

피데스개발이 지난 5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분양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총 622가구 모집에 6만5546건이 접수돼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싱글남녀 300명 20일 '단체미팅'

GS건설 '로맨틱 그랑서울' 개최

GS건설이 할로윈데이를 맞아 오는 20일 종각 그랑서울 물에서 싱글직장인 단체미팅 이벤트 '제11회 로맨틱 그랑서울'을 개최한다.

1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부제는 '로맨틱 할로윈(Romantic Halloween)'으로 그랑서울 물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며 인연을 찾는다는 의미다. 참가 대상은 25세부터 35세까지의 싱글남녀로, 15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동성 2인1조로 그랑서울 물 내부에 있는 제휴된 음식점(다찌미, 크레이지 후라이, 브리오슈도레(Brioche Dore), 아티제, 사보텐, 탭퍼블릭 등)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음식점에 입장하면 스텝의 안내에 따라 남녀 2대 2 비율로 자리가 배정되며, 음식과 맥주가 무제한 제공돼 자연스럽게 음식과 대화를 즐기게 된다.

행사장 중앙에는 할로윈데이를 기념한 포토존 이벤트, 남녀 참가자들의 연락처 교환을 높이기 위한 러브커넥트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에서는 할로윈데이를 기념한 다양한 선물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채신화 기자

정무위 국감 금융권 화두는 ‘즉시연금·암 보험·MG손보’

10일부터 20일간 45개 기관 감사 윤석현 금감원장에 집중 추궁 전망 금융위·금감원 참고인 20명 채택 주요 생보사 CEO 증인 참석 ‘불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암 보험 분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매년 수십 명의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지는 상임위로 올해도 어느 상임위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 관측이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11~12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총 20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의 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및 일괄지급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5만5000건의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하면서 논쟁이 심화됐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

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거부한 상태다.

한화생명도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에도 약

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구제가 맞다며 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원장에게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즉시연금과 함께 약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조위는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으나 교보생명은 기각했다.

다만 즉시연금과 암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CEO가 증인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해 주요 기업과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거의 불리지 않았다”면서도 “종합국감 때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김동진 전 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다. MG손보의 지분은 PEF(사모투자펀드)인 자베즈제2호와 새마을금고가 90.23%와 9.77%씩 보유했는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도 새마을금고다.

2015년 5월 당시 자베즈파트너스가 2012년 그린손보(현 MG손보)를 인수할 당시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밝혀졌다. 앞서 2014년 금감원은 400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9월 말까지 RBC(보험금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받은 상태”라며 “유상증자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국감 출석까지 하게 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식에 참석해 유해 봉송이 끝난 후 국군 전사자들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뉴스1

文 ‘강한 군대’ 주문... “힘 있어야 평화 지속”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식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서 개최 68년 만에 온 6·25 전사자 유해 봉환 유엔 참전군 등과 퀘서 오찬 경축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축하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핵심인 장병에 대한 배려와 국방 개혁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은 차별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돼야 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소통하는 군대,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경찰관·해경·소방관 등에 제대군인 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의 도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점심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 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경축연도 열었다.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경축연을 청와대에서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고,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완성하고, 개혁의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엔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에서 봉환한 64위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우리 국군으로 판명된 전사자들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문희상 “남북국회회담, 11월로 생각”

(국회의장)

최태복 北의장에 동의 답신 여야 5당 대표 포함 30명 규모 태스크포스 구성... 확정 아냐



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남북국회회담과 관련, 오는 11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 27일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치를 보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확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안정적으로 북측에서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넘어가는 중요 전환기인데 국회와 정당이 다시 한번 시각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남북문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평화가 자리 잡게 하느냐에 대해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달라진 시대에 국회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남북에 함께하지 못한 2당 대표가 꼭 남북국회 회담을 함께해서 북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걸으면서, 그속에서 비준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11월)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재진에게 “한국당은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당연히 함께할 것이고, 평양에서 하면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대표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문 의장이 원내 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를 전했다”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겠지 만 그것보다는 대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시간이 갈 것은 가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

www.pdna.co.kr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 경험해보세요 **동안크림**의 놀라운 효과 ”

P+DNA

피디엔에이 크림

피부관리샵의 연어케어, 받아보셨나요?

이제 바르는 크림으로 만나보세요.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물광피부도 동안관리도 크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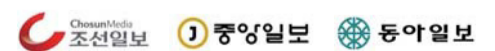
눈가, 입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피디엔에이 크림으로 관리하세요. 풍부한 영양감, 짙은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줍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물광 피부, 동안 관리 효과를 경험하세요.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신형 아이폰 특하면 먹통... 애플, 제품설계 문제있나

아이폰 XS·XS맥스 문제점 발생 “높은 가격에 버그?” 이용자 불만 기술 문제로 에어파워 출시도 지연

지난달 21일 애플이 출시한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XS와 아이폰XS맥스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제품을 받아서 사용해 본 사용자들이 문제점을 잇따라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애플 제품설계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여러 미국 IT매체가 일부 아이폰XS 및 아이폰XS 기기에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해당 기기 사용자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애플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필 실러가 아이폰XR, XS, XS맥스 등의 가격을 소개하고 있다.

/애플 키노트 영상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 방법도 다양해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려 기기를 켜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폰을 켜고 충전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해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화면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충전케이블을 꽂으면 아예 기기가 먹통이 되는 현상도 있다고 전해진다.

원인에 대해 맥루머스는 “iO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폰아레나는 “소프트웨어 버그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다”면서 “이렇게 높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기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에 앞선 9

월 25일에는 사용자들이 아이폰XS가 낮은 전파 강도에서 수신률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호소했다. 무선 전문가 앤드류 세퍼드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이폰XS/XS맥스 테스트 문서를 보고 이미 수신률과 전송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세퍼드는 “안테나 설계를 바꿔서 이득(gain)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면서 “이것은 새 리비전에서 가능하거나 아이폰4처럼 차기작에서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신감도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위웨이브랜스는 아이폰XR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측정해보니 수신률이 아이폰XS 및 XS맥스 보다 확연하게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이폰XS의 판매가는 999달러, XS맥스는 1099달러부터 시작한다. 749달러부터 시작하는 아이폰XR보다 뒤지는 수신률이

원래 의도한 성능일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의 제품설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디자인 부서 등의 힘이 강하다보니 탄탄한 하드웨어 설계 능력이 떨어진다는데 의견이다.

실제로 애플이 2017년 9월에 야심차게 공개한 무선충전패드 ‘에어파워’는 아직도 출시되지 않고 있다. 올려놓는 것만으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애플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던 기기다. 또한 이번 신제품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된 애플 홈페이지에서 에어파워는 보이지 않는다.

원인에 대해서 6월 블룸버그는 에어파워 출시가 기술적 난제를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디넷 역시 9월 12일 보도를 통해 너무 야심찬 구상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IT기업 2題



클라우드 서비스도 ‘블록체인’ 시대

IBM·오라클·아마존 등 시스템 개발 박차 국내서도 전자문서 보관 프로젝트 추진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 금융기술 분야에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M은 리눅스 재단과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 영역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오라클, 아마존, MS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도 일찍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앱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발 툴킷을 제공하는 등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라클은 최근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객에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기존 사용 중이던 타사의 서비스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적용 중이더라도 통합 적용해 빠르게 적용 시킬 수 있는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PaaS),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더리움 연합(EEA)의 초기 멤버인 컨센시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칼레이도’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도입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울인원 Saa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전세계적으로 웹기반의 클라우드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형 기업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메이드세이프는 일반 개인 PC의 남은 저장공간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개해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PC의 소유자는 보상으로 세이프코인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유휴 스토리지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속속 등장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의 보관, 저장에 특화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디스켓이라는 뜻의 비스켓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돼 생성된 데이터들의 효율적인 보관과 안전한 보존에 이어 경제적인 보관비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응용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비스켓 프로젝트는 다차원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인증 플랫폼인 애스톤 기반의 디앱(DApp)으로 개발이 진행되며, 애스톤 플랫폼 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자문서와 데이터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비스켓 프로젝트 관계자는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탈중앙화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파일럿에서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그중 클라우드 분야가 가장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범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애물을 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5G앞두고 외국계 IT기업 ‘좌불안석’

이달 내 KT·LGU+ 장비 우선협상자 발표 페이스북 등 망 중립성 문제도 부상 전망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장비 선정 등 세부적인 사안부터 정책 이슈까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기업·정부의 결단이 촉구되고 있다.

◆5G 장비, 中 기업 화웨이 여전히 ‘고민 중’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5G 장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10월 중순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3사를 5G 장비 공급자로 이미 선정한 바 있다. 내년 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늦어도 10월에는 구축에 나서야 한다.

KT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5G 장비 공급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꼽힌다. 화웨이는 5G 장비 가격과 기술 면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도 인정하는 기업이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과 보안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화웨이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미국에서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의 흑이 불거진 이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5G 장비 선정에서 제외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걸림돌이다.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동통신사의 특성 상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KT의 경우 SK텔레콤의 화웨이 장비 공급자 제외 결정 이후 이 같은 수순을 밟

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KT와 달리 이미 롱텀에볼루션(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기존 LTE망 구축 당시 도입한 장비를 연동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5G 트래픽 폭증 시대, 폐북·유튜브 등 해외 기업 ‘역차별’ 바로 잡나

5G가 상용화될 경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기업과 관련된 망 중립성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때문에 상용화 이전에 정부에서 망 중립성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제공업체(IPS)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은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하게 적게 내는 등 역차별 이슈가 얽혀왔다. 그러나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에는 이러한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라는 역차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트래픽 발생량으로 따지면 사실상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해외 IT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튜브는 캐시서버를 두고 망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지난해 수능 보다 국어 쉽고, 수학 나형·영어 어려워

평가원 9월 모의평가 實채점 결과

최고난도 문항은 상대적으로 평이
만점자 비율은 국·수학 모두 높아
영어, 전년 수능·6월처럼 어려워
1등급자 지난해보다 2.11% 낮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수학과 영어 영역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수능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겠지만, 전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29점, 수학기형 131점, 수학과 나형 139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5점 하락했고, 수학기형과 나형은 각각 1점, 4점 상승했다.

◆국어는 쉽게, 수학은 어렵게... 만점자 비율 증가, 최상위권은 쉬웠을 것
상대평가인 두 주요 과목의 표준점수



수능 D-50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수험생 학부모 등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점은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는 쉬웠고, 수학기형, 나형 모두 어려웠던 셈이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등급구분 표준점수(1등급컷) 역시 국어는 127점으로 지난해 수능(128점)보다 1점 낮아졌고, 반면 수학기형은 124점, 수학과 나형은 133점으로

작년 수능 대비 각 1점, 4점 올랐다. 하지만 만점자 비율은 국어는 물론, 수학기형, 수학과 나형 모두 높아져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국어영역 만점자 비율은 1.51%로 전년 수능(0.61%)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기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소폭 상승했지만 만점자 비율은 0.83%로 지난해 수능(0.10%)보다 늘었다.

인문사회계열 지원자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과 나형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랐지만 만점자 비율은 0.31%로 작년 수능(0.11%)보다 늘었다.

결국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교적 높았지만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최고난도 문항은 비교적 평이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원 시기자 수능기획분석실장은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작년 수능과 유사하거나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수학기형은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수학과 나형은 다소 어려웠지만 표준점수 최고점자 비율을 보면 상위권에 학생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영어 1등급자 7.92%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이 7.92%(4만614명)였다. 작년 수능에서 10.03%(5만2983명)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쉬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의 경우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모두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돼 올해 수능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모든 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과 같

거나 1~9점 높았고, 과학탐구도 화학 I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과 같거나 3~5점 높았다. 직업탐구 역시 1등급 커트라인이 상승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아랍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5점으로 제일 높았고, 독일어와 스페인어가 6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필수과목인 국어사영역에서는 원점수 4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이 21.27%(10만9299명)로 지난해 수능(12.84%, 6만8207명)보다 크게 늘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6월 모의평가는 매우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 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대체로 지난해 수능 수준을 유지하는 등 '널뛰기' 난이도를 보여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널뛰기 난이도를 보여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수능까지 남은 기간 심리적 안정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와 수학기형은 9월 수준으로, 국어는 9월보다 어렵게, 수학과 나형은 9월보다 다소 쉬운 정도로 보고 마무리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일자리 찾아 삼매경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입 논술 눈앞... "실전처럼 연습할 때!"

가톨릭대 등 6개대 6일부터 시작
지원대 모의논술 문제 충분히 풀고
만일 위해 교과공부 감 유지해야

2019학년도 대입을 위한 논술고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다수 대학의 논술은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치러지지만 일부 대학은 수능 이전인 10월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1일 진학사에 따르면, 가톨릭대, 경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이 수능 전인 10월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논술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과 같은 연습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 답안을 써야하는 논술은 충분한 사전 연습 없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기출이나

모의논술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시간을 재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게 좋다. 충분한 연습은 시험 당일 긴장감을 낮춰줄 수 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보통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합격 가능성 예측도 어렵다. 때문에 합격자를 뽑지 못해 총원합격자도 거의 없다. 따라서 논술 전형 준비에 올인하기보다는 학교 중간고사 준비에도 시간을 투자에 교과공부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게 좋다.

지난 2014학년도 이후 5년 만에 논술고사를 제도입한 성신여대나 올해 논술고사를 첫 도입한 한국기술교육대의 경우 각 대학입학처 홈페이지의 논술 가이드북이나 해설 동영상 등을 통해 논술고사 실시의도, 문제의 구성과 유형, 문항 해설과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한국기술교육대 수리논술의 경우 수학과 나형 수준에서 출제된다는 점과 공개된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 평이한 편이지만 모집단위에 따라 과학논술이나 경제논술을 함께 치르다든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신여대 인문논술의 경우는 제시문은 구체적인 사례와 그 사례에 접근하는 상반된 관점들을 소개하는 자료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제시문 이해는 까다롭지 않지만, 문제가 제시문 비교나 분석을 별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완결된 답안을 원하므로 답안 작성에 앞서 개요를 구성하고 내용의 체계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하는 것"이라며 "논술을 치른 후 결과에 연연하느라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잊고 수능에 다시 몰입할 수 있는 마인드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중앙대 美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과 국제 기초과학 R&D 협약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지난 9월 미국 시카고 페르미 윌슨홀(Fermilab Wilson Hall)에서 페르미 국립 가속기연구소(이하 페르미연구소, Fermilab: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와 '국제 기초과학 연구개발 협력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앙대 김창수 총장, 김원용 산학협력단장, 김시연 물리학과 교수와 페르미연구소 나이젤 로키어(Nigel Lockyer) 소장, 뉴욕주립대 정창기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한국대학 최초로 DUNE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공식적으로 'Fermilab Collaboration Center' 및 'DUNE Korea Office'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에는 협약을 기념해 '중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교내서 즐기는 '글램핑'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중앙도서관에서 10월 한 달간 '글램핑 인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은 도서관 안쪽의 정원 '운정뜰'에서 텐트와 캠핑 테이블, 의자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과 독서, 스터디 등을 즐길 수 있다.

류현수 학술정보팀장은 "피크닉이나 캠핑이 생각나는 계절,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가을감을 만끽할 수 있게 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도서관에서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는 '글램핑 인 라이브러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을을 즐기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면접 길수록 유리?... 40% "맘에 들면 더 질문"

(기업 면접관)

잡코리아, 기업 면접관 304명 설문
질문 많이 하는 이유 1위
'채용을 위한 확인 차원'

입사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 기업의 구직 면접관 절반 이상은 확신을 갖고 싶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잡코리아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304개사 면접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면접 시간은 지원자 한 명 기준 평균 25.6분으로 집계됐다. 면접 시간별로 약 30분(34.9%)에서 20분(23.0%) 정도 진행되는 기업이 과반수 이

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응답자의 38.5%는 '면접시간이 긴 지원자가 채용될 확률이 높다'고 답해 면접 시간이 길면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면접시간이 짧은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응답자는 9.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떤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 묻는 결과 '채용할 만 하나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지원자'란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과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지원자'(37.0%), '채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원자'(36.6%), '왜 지원했는지 입사동기가 모호한 지원자'(14.7%), '채용하

고 싶지 않은 지원자'(10.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 응답 기업들의 면접 단계는 실무면접을 거쳐 임원면접까지 2단계로 진행되는 기업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단계만 진행되는 기업도 37.2%였다.

신입사원 면접방식(복수응답)은 '일대일 개별면접'이 5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수의 면접관과 지원자 한 명이 참여하는 다대일 면접'(43.1%),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다수 참여하는 다대다 면접'(23.0%), '면접관 1명과 지원자 다수'(18.8%) 순이었다.

이밖에 최근 이슈화되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던 기업은 11.8%였고, PT면접(11.5%), 이색면접(3.6%), 토론면접(2.3%) 등을 도입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용수 기자

선물하세요 고마운분께



귀한 분들 일수록 귀한 걸 드려야죠.
몸에 좋은 성분을 12배 농축한
비타민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귀할수록 전문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이렇게 창업하면 백전백패



이상연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연일 방영되는 먹방과 쿡방프로그램이 창업자들을 힘들게 한다.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요섹남'이다. 요리는 섹시한 남자, 참 멋지다. 그러한 풍조 때문인지 개그맨,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이 앞다투어 주방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한다. 소위 그들만의 비법을 전수한다고들 난리들이다. 창업은 절실하다.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창업자들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아이템을 찾으려 한다. 그러한 차별화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나 외식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라면 한결같은 00비법, 000특제소스 등과 같은 색다른을 전

하는 단어나 어휘에 현혹될 수 밖에 없다. 최근 TV 요리, 예능프로그램이 그러한 간절함을 이용하여 시청률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창업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한다. 기본적인 성공창업 4요소라는 아이템, 입지, 자금, 창업자 이외에도 수많은 종속변수가 승패를 달리할수 있는것이 창업이다. 외식업의 가장 기본이 음식 맛에 대한 경쟁력이다. 즉 수익을 목적으로 음식을 서비스한다면 당연히 맛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서비스의 차별화와 마케팅, 운영자의 능력이 최대 변수일 수 밖에 없다. 단지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과장된 리액션에 일희일비해선 안된다. 필자도 한때 수 많은 TV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출연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리얼리티를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작가와 피디에 의해 연출되

고 과장된 영상을 가장 자극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그저 화면상의 표정과 대화를 신봉한다. 이같은 결과 수많은 대박집이나 유명 음식점을 투여한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크게 실망한다. 단순한 방송의 과장된 연출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창업은 소비자와의 진실게임이다. 얼마나 정성과 노력으로 고객과의 교감을 이루려는 작업이 창업이라 할수있다. 교감이란 가격대비 만족을 의미한다. 고객은 팔색조라 일컫는다.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만족은 단지 상품의 품질과 중량만으로 기준할수 없다. 창업자들은 자신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어야 고객의 관심과 사랑을 교감으로 승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나부터 최고로 포지셔닝하자.

/한국창업연구소장



중기중앙회·산림청 '산림 일자리 창출' 맞선
중기중앙회는 산림청과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기중앙회와 산림청은 석재, 바이오, 관광, 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왼쪽부터)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GS그룹-한국무역협회 대기업·스타트업 상생모델 구축 앞장

GS그룹이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앞장선다. GS는 오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장'을 주제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벤처 네트워크 행사 'GWG X KIT A'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GWG(Grow with GS) 행사는 2015년부터 GS홈쇼핑이 투자사와 파트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벤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올해 행사는 GS홈쇼핑뿐만 아니라 GS칼텍스·GS리테일·GS글로벌·GS건설 등 GS 계열사들이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스타트업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상

생협력 모델 구축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있는 300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이중 GS 계열사와 무역협회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54개사를 선발해 전시부스 운영,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행사 및 IR포칭 등을 진행한다. 특히 스타트업이 직접 투자 설명회를 하는 IR포칭에는 8개 유망 기업이 참가하며 전문평가단이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 3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도 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태광그룹, 최대 6학기 지원 장학생 선발

국내 4년제 1학년 재학생 중 60명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일주재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의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2019학년도 27기 국내학사 장학생 선발'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공제한 없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 60명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재단 설립자 고 이임우 회장의 철학에 따라 1991년부터 2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5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 재



학생 중 1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4.5점 기준)이며, 선발 후 학기당 15회(총 30시간) 이상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제출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 각종 활동내역 증빙서류 등이며, 접수는 일주학술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골든블루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후원

골든블루가 세계 유일의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유일한 국가대항전으로 이번 대회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세계 랭킹 기준으로 총 8개국, 32명 선수가 출전하여 우승을 겨루는 LPGA 공식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태국, 대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하여 나흘간 치열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2년마다 개최되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기존에 대회가 진행되었던 미국에서 벗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며, 3회 개최되는 LPGA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한국으로 결정됐다. 이번 대회 유일하게 공식 주류 후원사로 선정된 골든블루는 국내 1위 위스키 '골든블루'와 세계 4대 맥주회사의 '칼스버그'로 세계 골프 애호가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한 대회 후원에 그치지 않고 위스키 '골든블루'의 도수인 36.5%와 기부를 연계한 홀인원&버디 이벤트(Donation with Players)도 함께 진행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최종구 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점' 개소식 참석

“IBK창공, 혁신창업 생태계 마중물 될 것”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 이달 3조 성장지원펀드 집행

“기업은행의 'IBK창공' 등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구로동 기업은행 지점 5층에 개점한 IBK창공 구로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5000만원의 초기 투자, 저금리 대출, 컨설팅, IR,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다. IBK창공 구로는 기업은행 구로동지점 건물에 마련됐으며, 306개 기업이 지원해 15.3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최종 선발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IBK창공'의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영업점을 활용해 청년 기업에 사무공간 및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IBK창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안건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장(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1일 서울 구로동에서 열린 'IBK 창공(創工) 구로' 개소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은 청년창업 생태계가 풍부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이나 IBK창공 등이 단순히 물리적 사무공간을 넘어 혁신창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옛 신보 마포사옥을 국내 최대의 청년 창업타운으로 조성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혁신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

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허용하고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분야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4년간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3조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해 10월부터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191@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급 △소통메시지비서관 박상주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연숙 △의료기관정책과장 오창현 △건강정책과장 김국일 △구강생활건강과장 장재원 △보건과학기술개발과장 정은영 △사회서비스지원과장 임혜성 △사회보장총괄과장 김문식 △노인정책과장 이상희 △기초연금과장 서일환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학역소 검역1과장 주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이춘기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이한기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안전지원과장 변루나
 - ◆충북도 ◇4급 △에너지과장 신동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진탁 ◇5급 승진 내정 △전략산업과 김유택 △의회사무처 박종복 △경제자유구역청 배성만 △정책기획관실 조미애 △안전정책과 하석호 △전략산업과 전광호 △바이오산업과 정길 △농업정책과 김기은 △유기농산과 남태우 △동물위생시험소 최동수 △축수산과 엄만섭 △보건정책과 한찬오 △회계과 지영훈 △유기농산과 최용해 △건축문화과 이범찬 △토지정보과 박승용 △정보통신과 김유중 △보건환경연구원 광충철 △농업기술원 황세구 △보건환경

- 연구원 신기호 △농업기술원 신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담당관 전유덕
- ◆문화재청 ◇과장급 정보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장 김동태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장 신용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김정남
-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ECM2부 하진수
- ◆라이나생명 ◇상무 승진 △ Build 영업본부/영업기획부 이인형 ◇이사 승진 △ IT 개발부 박승철 △ IT 기획부 이용수
- ◆IBK연금보험 ◇자산운용본부장 신규 선임 △안태일(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채권운용실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승진 △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김경윤 △ 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채준원 ◇ 상무 승진 △ 재무/회계 경영지원본부 Ray Yap △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이용세 △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민주홍 △ 마케팅/퍼레이션 사업본부 유현경 ◇ 이사 승진 △ 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권현숙 △ 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이승호 △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이준용 △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진상훈 △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 사업본부 최소영 △ 재무/회계 경영지원본부 길민기 △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윤진섭 △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이승희 △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서상원 △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오근택 △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김동욱 △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김성미 △ 마케팅/퍼레이션 사업본부 이승연
 - ◆CBS ◇ 승진 △ 미디어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1CP 부장 박유진
 - ◆전북일보 △ 편집국장 강인석 △ 서울본부 선임기자 김준호
 - ◆EBN △ 편집국 유통중기부장 정현철 △ 광고 마케팅국 부국장 황재섭
 - ◆매일일보 △ 산업부장(부장) 이근형
 - ◆이투데이 △ 논설실장 추창근
- 부음**
- ▲ 이천우(웨더피아 대표)씨 별세, 이상원(한국수력발전 UAE 사업센터 대리)·이종은(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씨 부친상, 임상욱(BMGBS)씨 장인상 = 1일 오전 7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2072-2091

가을의 완성은 '트렌치코트'... 오버사이즈·체크무늬 대세

본격 가을맞아 신제품 잇따라 선보여 리버시블 등 실용성 높은 제품 주목 오프라인 매장서도 준비 한창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었다. '트렌치코트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 브랜드들은 지난달부터 트렌치코트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트렌치코트가 올 가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일찌감치 관련 마케팅에 돌입했다.

올해는 넉넉한 오버사이즈에 체크무늬가 트렌치코트의 유행을 관통할 전망이다. 또한 실용성을 겸비한 활용도 높은 디자인이 주목 받는다.

신세계인태서날의 스튜디오툰보이(Studio Tomboy)는 올 시즌 다양한 오버사이즈 제품을 내놓는 한편, 체크 무늬



스튜디오툰보이, 빈폴 레이디스.



트렌치코트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스튜디오툰보이의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

는 겹옷 위에 겹쳐 입을 수 있어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다.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의 유행으로 간

절기용으로 통용되던 트렌치코트의 착용 기간이 초겨울까지 늘어난 것이다.

양면을 모두 활용한 '리버시블 트렌치코트'도 주목 받는다. 여성복 브랜드 보브가 이번에 선보인 리버시블 트렌치코트의 경우, 클래식한 베이지 색상과 그린 체크 패턴이 양면을 이루고 있어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레이디스도 지난달 다양한 트렌치코트를 선보였다.

모던하게 재해석된 오버사이즈 제품부터 후드를 접목한 독특한 디자인의 후드 트렌치코트 등 무늬와 디자인, 활용도 등을 두루 고려한 제품을 내놨다.

패션 브랜드들의 움직임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트렌치코트를 전면 배치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일찌감치 지난달에 '트렌치코트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인기 여성 트렌치코트를 정상 가격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남성 고객을 겨냥한 '트렌치코트 페어'를 동시에 진행했다.

롯데백화점은 편안하고 실용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정장, 원피스 등과 함께 입을 수 있는 더블버튼 트렌치코트가 올 가을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여성복 브랜드 지고트, 주크, 라인 등은 트렌치코트 물량을 지난해 가을보다 20% 가량 늘렸다.

스튜디오 톰보이 마케팅 담당자는 "올 가을 유행인 긴 기장의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는 좀더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가을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청바지와 티셔츠, 스니커즈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입으면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여성스러운 타이트한 스커트에 앵클 부츠와 함께 매치할 때는 소매와 허리를 꽉 묶어 입으면 세련된 여성미를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올리브영 강남본점, 1년새 500만명 방문

상권 안착... 국내 매출 1위 자리매김 매출량·고객 수 꾸준히 증가 추세

올리브영 강남본점이 강남 상권 쇼핑 명소로 안착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은 강남본점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고객 매출 1위 점포로 자리매김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본점은 지난해 9월 30일 강남역 핵심 상권에 4개층 초대형 규모로 개장한 올리브영의 대표 플래그십 스토어다. 오프라인 매장의 성장이 쉽지 않은 요즘, 개장 1주년을 맞은 강남본점은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매출은 개장 직후인 지난해 4분기(10~12월)와 비교해 39% 신장했다. 매출 뿐만 아니라 고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강남본점은 올리브영 전국 매장 중 명동본점을 잇는 매출 기준 2위 점포다. 국내 고객 매출로만 집계했을 때는 단연 1위다. 명동본점이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K-뷰티 쇼핑 메카라면, 강남본점은 대한민국 2030 젊은 세대가 가장 즐겨찾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유통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내점



올리브영 강남본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고객들.

/올리브영

고객수가 일 평균 2만 명을 넘어선다.

강남본점이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데는 강남 상권을 철저히 분석한 상권 맞춤형 매장이라는 점이 있다. 올리브영은 색조 수요가 높은 강남 상권 특성을 반영해 1층을 색조로만 구성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난 인디(Indie)브랜드부터 프리미엄까지 색조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강남본점의 1년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색조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리브영 매장 평균인 2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강남본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브랜드 역시, 맥

(MAC)과 쓰리킨셉아이스(3CE), 클리오(CLIO) 모두 색조 브랜드였다.

또한 강남본점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업계 최초의 스마트 스토어로서,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차세대 모델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다.

고객 '체험'과 '체류'에 주목하고 'AR(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곳곳에 접목해 쇼핑 편의를 높인 결과, 고객 체류 시간도 일반 매장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통업계 화두인 '언택트(Untact) 스토어'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민서 기자

동원F&B '뉴트리플랜 애견 건사료' 2종 출시

동원F&B가 애견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그동안 애묘 시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애견 펫푸드에도 카테고리를 확대해 나간다. 동원F&B는 고급 애견 건식 펫푸드 '뉴트리플랜 애견 건사료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애견 건식 카테고리 첫 진출인 만큼, 자사의 강점인 원료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뉴트리플랜 애견 건사료 2종은 단백질원인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참치를 주원료로, 각각 면역력을 위한 홍삼과 피부건강을 위한 크릴새우를 담아 가능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홍삼은 동원이 직접 수매한 인삼으로 정성껏 만든



6년근 홍삼이며, 남극해에서 동원이 직접 잡은 크릴새우는 피부건강과 눈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타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한편, 2종 모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트펄프와 유카추

출물 및 천연원료를 사용한 천연항산화제를 함께 담았다.

동원F&B는 '뉴트리플랜 애견 건사료 2종' 출시를 시작으로, 애견시장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펫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캐나다 브랜드 '뉴트람(nutram)'의 고급 애견 펫푸드를 비롯해, 태국 최대 기업인 CP그룹의 펫푸드를 조만간 국내에 독점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듯 반려인구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콘셉트의 펫푸드 제품을 통해 올해 약 3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인홍 기자

한국야쿠르트, 해외 식품브랜드 유통 확대

한국펫시콜라와 손잡아 네이키드 주스 한정판매

한국야쿠르트가 한국펫시콜라와 손잡고 '네이키드 주스(Naked Juice)' 2종을 한정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네이키드 주스'는 미국 프리미엄 주스 브랜드로 무설탕 착즙 주스로, 뛰어난 블렌딩 기술로 달콤하고 부한국야쿠르트, 해외 유명 식품브랜드 유통 확대드러온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은 '스트로베리 바나나'와 '블루머신'이다. '스트로베리 바나나'는 딸기, 사과, 바나나 등을 착즙하여 만든 주스로서 한병(1.36L)에 딸기 68개, 사과 5.25개, 바나나 4.5개 등이 들어가 있다. '블루머신'은 한 병(1.36L)에 블루베리 82개, 사과 10개, 바나나 3.5개, 블랙베리 9개를 모아 착즙했다.

'네이키드 주스'는 스무디의 특성상 살짝 얼리거나 얼음을 넣어 마시면 좋다. 과일을 베이스로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들어있어 간편한 아침대용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네이키드 주스.

/한국야쿠르트

제품 주문은 온라인몰 하이프레시 또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가능하다. 제품 가격은 출시기념 특별할인 이벤트로 10월 19일까지 1만44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10월부터 '후쿠오카 명물'이라 불리는 '야마야명란 마요네즈'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야마야명란 마요네즈'는 명란 고유의 짭조름한 맛과 마요네즈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을 자랑한다. 샐러드나 바게트, 크림파스타 등 어디에 뿌려먹어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은 첫 출시 당시 하루 만에 2000개가 팔리며 조기완판을 기록했다. 재입고와 품질을 반복하며 출시 3개월 만에 총 3만개가 판매됐다.

/박인홍 기자 parkiu7854@

KT&G, 강남에 '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KT&G가 퀴련형 전자담배 '릴(lil)'의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lil MINIMALIUM)'을 오는 3일 서울 강남에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릴'이 현재까지 85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KT&G는 '릴 미니멀리움'을 열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릴 미니멀리움' 1호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교보타워의 옆건물에 문을 열며,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매장 1층에서는 '릴'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와 파우치 등의 전용 액세서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2층은 A/S서비스와 고객



릴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KT&G

상담, 멤버십 라운지로 구성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KT&G가 앞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인 '릴 미니(lil mini)'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더 가볍고 작아진 사이즈가 특징인 '릴 미니'는 화이트와 민트 두 가지 색상으로, '릴 미니멀리움'에서만 1일 100대에 한정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박인홍 기자

상암경기장 2배, 세계 최대 바이오공장

FDA 인증 cGMP 생산 도입

삼성바이오로지스

의약품 3공장 자체검증 완료 하루에만 1200개 샘플 채취 약 4500건 검증기록 확보

삼성바이오로지스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인 3공장이 자체검증을 완료하고 cGMP 생산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cGMP는 미국의 식품의약품(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이다.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기계적 완공 후 생산 돌입에 앞서 설계부터 시설, 부품, 문서, 인력 등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들을 cGMP '규정에 맞춰 자체검증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지스는 "3공장이 기존 2공장 대비 생산규모는 약 20%, 설비는 약 6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공장보다 2개월 빠른 10개월 만에 cGMP 인증을 완료했다"며 "1, 2공장 건설 및 검증 작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는 최적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사전에 제거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검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인 18만리터 규모로 연면적은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향후 글로벌



1일 삼성바이오로지스 3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별 제조승인 획득을 위한 생산을 약 2년간 진행하고 제조승인획득 후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이번 검증을 통해 약 4500건의 검증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증 기록은 향후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 과정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는 하루에만 평균 약 1200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테스트하는데 이 중 하나만 오류가 발생해도 재작업과 검증에 1주일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 사례교육, 샘플 채취 표준화 및 오류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는 경험이 많은 인원을 추가

투입하며 실패율을 0.02%까지 줄였다.

또 검증 문서를 표준화해 문서 작성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해 기기당 발생하는 검증문서 건수를 기존 8건에서 6.6건으로 17% 이상 줄였다.

삼성바이오로지스 김태한 사장은 "3공장의 생산돌입은 삼성바이오로지스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CMO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ul.co.kr

보령제약그룹 61주년

“변화·혁신으로 삶의 가치 높여겠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라이프타임 케어 컴퍼니로 도약하겠다.”

보령제약그룹 김승호회장은 1일 창업 61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령제약그룹은 이날 서울 창경궁로 보령빌딩 중보홀에서 창업 6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같은 날, 창립 55주년을 맞은 보령제약과 BR네트콤(창립 22주년), 보령중보재단(설립 10주년)의 창립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임상과학을 전제로 한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자가 되겠다”며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토탈 헬스케어 컴퍼니(Total Health Care Company)’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라이프타임 케어 컴퍼니(Lifetime Care Company)’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Heart),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도전(Ask)과 과학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Science)으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결과(Answer)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며 “글로벌 수준의 경영체제를 수립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으로 내실을 높여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으로, 국내 선도 제약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의 개척자로서 100년 보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와 우수사원, 공로자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졌다. 우선 장기근속자 표창에는 보령제약



1일 서울 창경궁로 보령빌딩 중보홀에서 진행된 보령제약그룹 창업61주년 기념식에서 보령임직원들로 구성된 보령염지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김기정 상무, 김기환 부장, 김광현 수석기자 등 3명이 30년 근속 표창을, 보령제약 김환순 기능사1급, 정승영 수석기사, 박찬우 부장, 조재영 차장 4명이 20년 근속 표창, 보령메디앙스 민병희 매니저 등 62명이 1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보령제약그룹은 1957년 서울 종로5가 약국에서 시작해 값싸고, 친절하고, 없는 약이 없는 약국이라는 경영방침으로 급성장했다. 이후 제약업에 진출해 용각산, 겔포스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육아생 활문화기업 보령메디앙스, 첨단생명공학기업 보령바이오파마, 온라인몰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보령킨슈머, 의료기기전문기업 보령A&D메디칼 등의 제약그룹으로 발전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1년에는 국내최초 고혈압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개발·발매했으며, 현재 카나브는 전세계 51개국과 4억7000만달러 규모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중남미, 동남아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세경 기자

동아ST, ‘빈혈치료제’ 日 제조판매 신청

적혈구조혈자극제 바이오시밀러 완제 SKK에 수출·일본 판매 전담

동아에스티는 일본 삼화화학연구소(SKK)가 지속형 적혈구조혈자극제 '다베포에틴-알파'의 바이오시밀러인 'DA-3880'의 일본 내 제조판매 승인을 후생노동성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동아에스티와 일본 SKK는 DA-3880의 일본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K는 2015년 임상1상을 시작으로

일본 내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대비 DA-3880의 동등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3상 시험을 진행했다.

계약에 따라, 제조판매 승인 후 동아에스티는 완제를 SKK에 수출하고 SKK는 일본 내 판매를 전담하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제조판매 승인은 신청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DA-3880은 미국의 암젠과 일본의 교와코기린이가 공동 개발한 지속형 적혈구조혈자극제인 다베포에틴-알파의 바이오시밀러로,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

및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전세계 매출은 30억 달러, 일본 내 매출은 500억 엔에 달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조그렐와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의료비 감소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아에스티는 DA-3880이 일본 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삼화화학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일본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17일까지 2018 하반기 공개채용

대웅제약이 오는 17일 까지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의 모집 부문은 △연구(합성신약·바이오신약·DDS·의약품분석·비임상평가·전략기획 등) △개발(개발·임상) △생산(생산·QC·QA·물류·경영지원 등) △영업(수도권·지방·해외 등) △법무 △마케팅 등 110명 규모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9년 2월) 또는 주니어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인적성 검사, 원데이 면접, 인턴십 순으로 진행되며, 인턴십 3개월이 끝난 후 최종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직원의 성장이 회사의 목표’라는 가치 아래, ‘학습, 소통, 협력, 실행’의 4가지 인재상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대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면 정원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전승호 사장은 “대웅제약은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도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회사로, 자율적으로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대웅제약과 함께 성장할 우수한 역량을 가진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건국대, 바이오창업 지원·연구 실용화 ‘KU-GRID’ 설립

건국대학교는 미국 메릴랜드주립대가 운영하는 의생명·의과학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도입, 학생들의 바이오 창업과 교수 연구 실용화를 지원하는 ‘KU-GRID’(건국대 융합의과학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메릴랜드주립대의 그리드 시스템은 지난 2005년부터 볼티모어 캠퍼스에 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국대는 메릴랜드주립대와 협약을 체결, 그리드 시스템을 건국대 서울캠퍼스내 의학과 수의학분야에 특화된 건국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도입해 의생명 분야 연구 기술실용화와 창업을 지원할



건국대학교는 미국 메릴랜드주립대가 운영하는 의생명·의과학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도입, 학생들의 바이오 창업과 교수 연구 실용화를 지원하는 ‘KU-GRID’(건국대 융합의과학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건국대학교

계획이다. KU-GRID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다양한 창업동아리와 교수진 등이 참여해 바이오 클러스터에 갖춰진 각종 실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창업 활동에 나선다. 또 민간VC, 바이오협회, 제약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용화 중개연구와 창업교육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일동제약 ‘마시는 마그네슘, 아로골드Mg’ 출시

일동제약이 ‘마시는 마그네슘, 아로골드Mg(엠지)’(사진)를 1일 출시했다.

아로골드Mg는 유기염 마그네슘인 글루콘산마그네슘 100mg을 비롯해 비타민C 일일권장량 100mg, 비타민D 총분 섭취량 600IU 등이 함유된 프리미엄 마그네슘 드링크이다.

사과 과즙이 들어있는 상쾌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카페인을 넣지 않아 건강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병디자인에 에메랄드 색상을 사용하여 녹색채소 속 엽록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의 속성을 세련되게 나타냈다.



일동제약 음료 담당자 고명훈 대리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필요량 대비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로골드Mg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등을 간편하고 맛있게 보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마그네슘 드링크”라고 강조했다.

일동제약은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비타민D 드링크 아로골드D와 신제품 아로골드Mg 등 ‘아로골드 시리즈’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농진청, 농촌 어르신 ‘행복 2막’ 프로젝트 뜨거운 호응

인지하고, 마음 열고, 귀 기울이니 되살아나는 ‘이웃精’

‘노인 공감 높이기 프로그램’

경기도 5개 마을 54명 대상 진행
공감능력·대인관계 점수 모두 ↑
만족도 높아 10명 중 9명 ‘재참여’

최근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진청 흥청이 농촌 노인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과 대인관계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의 3요소인 인지, 정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갈등 해소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으로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인지’에 관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공감의 기



농진청이 개발한 노인 공감력 높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농진청

초를 다질 수 있는 ‘마음 열기’, ‘자기 이해하기’, ‘상대방 이해하기’ 3개 주제로 이루어졌다.

관련 체험은 ▲만다라 색칠과 소감 나

누기 ▲감정 종류 이해하기 ▲표정 그림과 감정 단어 잇기 ▲감정 표현 알아맞히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정서’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

이나 감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하기’, ‘귀 기울이기’ 2개 주제로 구성했다.

관련 체험으로는 ▲얼굴 표정 표현하기 ▲상황 그림 전달하기 ▲맞장구 연습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정서적으로 공유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관계 맺기’ 2개 주제다.

관련 체험은 ▲정중하게 요청하기 ▲상황에 맞는 표정 짓기 ▲장점 찾고 칭찬하기 ▲공동화 그리기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농진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의 5개 마을(여주, 연천, 이천, 평택, 포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54명에게 주 2회 2시간씩 4주 간 적용한 결과, 공감 능력 점수(3.72점→4.29점)와 대인관계 점수

(3.78점→4.26점)가 모두 향상됐다. 또한, 매우 높은 만족도(2.93점/3점 만점)를 보여 참가자 10명 중 9명은 다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노인은 “농촌지역이 삭막해지면서 이웃과의 교류도 예전과 같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조금은 더 친해진 것 같다”며 프로그램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농진청은 이 내용을 담은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노인상담연구소 등에 배부했다. 아울러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최정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이 프로그램으로 농촌 노인이 이웃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마권 구매상한제 유명무실... 마사회 방관”

박완주 더민주 의원

마권 판매 70%가 자율발매기
직접적 통제 어려워 위반 수월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9940건으로 본장 1만8835건, 장외발매소 2만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2756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6354억원, 유인발매기 7965억원, 계좌발매 939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

박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해수·퇴적물 미량금속 국제숙련도 ‘최고’

해양환경공단 시험서 전항목 ‘만족’

해양환경공단(KOEM)은 국제원자력기구(IAEA-NAEL)와 WEPAL(QUASIMEME)에서 주관하는 해수 및 퇴적물 미량금속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전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해수 및 퇴적물 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IAEA-NAEL과 WEPAL(QUASIMEME)에서 진행되는 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약 100여 개 이상의 분석기관이 참여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IAEA-NAEL은 해저퇴적물 부분 구리의 11항목, WEPAL(QUASIMEME)은 해수 부분 수은의 9종과 해저퇴적물 부분 구리의 12종의 총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공단은 전 항목에서 ‘만



족’ 판정으로 인증을 받았다.

특히, IAEA-NAEL에서 수행한 해저 퇴적물 미량금속은 올해 처음으로 인증 받았으며, WEPAL(QUASIMEME)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해수 미량금속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전 항목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해저퇴적물 부분은 2012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공단에서 생산한 해수 및 퇴적물 미량금속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미량금속 분석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명품 전통주’ 대통령상 주인공은?

aT ‘2018 우리술 품평회’
품평회 접수 8일까지 진행
5개 부류 3점씩 15점 선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수 전통주의 선별·육성 및 품질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해 ‘2018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최고권위의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로, 우수한 전통주에 대해 탁주(살균탁주, 생탁주), 약·청주, 증류주(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과실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류에 각 3점씩 총 15점을 선발한다.

출품작들은 국산농산물 사용실적과 우리술 품질인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와 우리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관능평가 결과를 합산해 각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 등의 수상작이 결정된다.

대통령상은 5개 주종별 1위 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시설, 품질관리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관능평가를 실시해 최고 득점 1점에 대해 수여된다.

품평회 접수는 ‘우리술 품평회 홈페이지(www.우리술품평회.kr)’를 통해 이달 8일까지 진행된다.

aT 관계자는 “올해도 우수한 우리 전통주 업체의 많은 참여를 통해 국가 공인의 최고 권위 주류품평회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소벤처 2곳 중 1곳 “중소 대표기관은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의 55% 가량은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2019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글로벌CEO클럽 등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글로벌CEO클럽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회원사 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밝혔다.

우선 응답자의 54.5%는 중진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중소기업 대표기관(대표성)을 꼽았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친절성)(20.0%) ▲중소벤처기업 문제 해결사(전문성)(13.0%) ▲최초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역사성)(10.1%)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진공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진공 40주년 준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전, 전략수립, CI개편, 성과사례집 발간, 40년사 편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진공의 장점은 ▲자금, 수출, 인력, 창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 분야 기능 제공(67.4%) ▲최초의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14.8%) ▲현장실사, 기업진단 등 중소기업 전문 지원인력 보유(10.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

코트라, 아프리카 블루오션 수단 공략

韓·수단 비즈니스협력 포럼 상담회

코트라(KOTRA)가 아프리카 대표 블루오션인 수단 시장 공략에 나선다.

KOTRA는 플랜트산업협회와 함께 수단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오는 3일(현지시간) 수단 카르툼에서 ‘한·수단 비즈니스협력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14개 기업과 KOTRA, 플랜트산업협회를 비롯해 산업부, 주수단대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함께하고 수단측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수단 상의 등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GIAD(수단 최대 공기업) 등 기업 대표 160여명이 참가해 우리사절단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수단은 인구 3900만명, GDP 1250억 달러로 아프리카 내 3위, 세계 16위 국토면적, 풍부한 광물과 수자원 등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대표 국가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국가다.

지리적으로도 이집트 남부의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어 중동을 거점으로 아프리카나 반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KOTRA는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단 진출 호조 및 매력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20년간 지속된 미국발 경

제제해 해제에 이어 조만간 테러지원국 해제가 기대된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금융, 무역투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석유생산 재개 가능성이다. 지난 2010년까지 석유는 수단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1년 남수단 분리 독립으로 보유 유전의 4분의3을 상실해 지금까지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년 넘게 지속된 남수단 내전 종식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수단 내 석유 생산, 수단과 국경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수단 석유 생산이 재개되면 수단은 송유관 사용료 및 석유 확보, 보상금 회수 등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많은 수단 기업인들은 과거 제조업분야 최대 투자기업으로 자신들의 산업화를 이끌어줬던 대우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승희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은 “블랙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젊은 대륙 아프리카가 자원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수단은 20년간 제재가 이어지면서 외국기업 진출이 미흡, 소비자들이 다양한 외국제품을 접할 기회가 제한받았다”고 강조했다.

/양성문 기자 ysw@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월 90만원 /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

선시공 후분양
10년 임대보장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 ✓ 1가구 2주택 미적용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 양도세 증가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5천에 2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 ✓ 공실걱정 無
- ✓ 유지보수 無
- ✓ 중개수수료 無

시행사: (주)골든핏 씨앤디
 시공사: 대림산업
 신탁사: 아시아신탁
 분양사: (주)엔터렘

• 우리은행 : 1006-301-474637
 •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 청약금 : 100만원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1811-8821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	연면적	67,484.9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45	보증금 1,000 / 월 41	보증금 1,500 / 월 37	보증금 6,500 / 월 20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무자금액 2천만원대		

▶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당첨제이므로 당첨자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지참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결과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혜택

- 1 1가구 2주택 미적용
-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4 양도세 증가 배제

문의 1811-8821



기아차 광주공장, 소울 양산 다짐결의

기아차 광주공장은 1일 연구동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 광주지역 경제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모델인 소울 신차(프로젝트명:SK3)의 성공적인 양산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광주공장을 대표하는 소울 신모델 출시인 만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전남 무안, 공공비축미곡 6569톤 매입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5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군은 1일 올해 공공비축미곡 물량 6569톤(포대벼 4249톤, 산물벼 2320톤)에 대해서 읍·면별로 오는 2일까지 배정을 마무리 짓고 5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배정량을 비롯하여 쌀 전업농 배정량, APTERR(해외공여)용 배정량을 포함한 물량으로 전년도 배정물량 5784톤보다 785톤 늘어났으며, 40kg 포대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보다 1만9632포대가 늘어난 물량이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생산지 쌀값을 반영하여 12월중 확

정되며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무안군은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 “신동진”, “일미”외 다른 품종의 혼입을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 장소에서 품종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 다른 품종이 출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부서간 소통 강화 ‘협업포인트제’ 운영

광주 북구, 연말까지 시범운영 우수직원 포상·인센티브 부여

광주시 북구가 협업을 통한 행정역량 결집으로 업무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조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 제도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다른 부서·직원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 협업한 직원 간 감사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전달하는 제도다.

협업 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자동 배정받아 협업 상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보낼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도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시·구정 연구모임 등 참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 제출 등 업무 정보와 지식 공유 시에는 특별 협업포인트도 부여된다.

북구는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협업포인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상 개선점을 파악한 후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며, 월별로 협업 포인트 실적을 합산해 우수 부서·직원에게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간 격의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은 조직문화조성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일자리 10만개 창출·고용률 68% 달성 목표

광주시,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4대전략 10대 중점·80개 세부과제 선정

광주시는 1일 제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김일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중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률 68%를 달성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연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고용률은 63.8%로 전국 평균 66.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10만 개의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 1만6400명, 전략사업 7000명, 창업·투자유치 9000명, 취업지원 2만9000명, 사회기반시설 1만7000명, 사회적경제 1600명, 문화관광 9000명, 사회서비스 2000명, 기타 9000명 등이다.

광주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8월 17일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하고 1개 일자리 분야별 전문 기획단(T/F)을 구성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현장 전문가,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4대 전략은 인프라 혁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이다.

광주시는 4대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점검단’을 통해 80개 세부 추진과제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정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해 일자리 창출에 쏟을 것”이라며 “로드맵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추억과 낭만 가득’ 목포항구축제 5일 개막

풍물패·MTB자전거팀 등 공연 할어 경매·파시수랏간 회터 운영

1897년 개항한 목포는 문화와 예술이 번성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던 활력 넘치는 국제적 항구도시였다.

세월의 풍파와 시련 속에서 구성지게 ‘목포의 눈물’을 부르던 목포 사람들은 목포항구축제를 통해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다시 펼쳐보인다.

올해 축제는 오는 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목포항 여객터미널에서 시민과 관광객, 전문공연팀이 모여 역동적인 항구도시, 맛과 멋을 즐기는 예약의 도시, 낭만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만민기를 흔들며 펼쳐는 ‘풍어파시길놀이’로 막을 연다.

길놀이는 뱃고동 소리와 함께 만선을 기원하는 행렬이 목포항 일원의 흥을 북돋는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한 행진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풍물패, MTB자전거팀, 해군 군악대, 어구상자 퍼레이드 등이 축제의 물길을 연다.

이어 시립무용단의 공연 ‘목포항 파시



목포항구축제 선상경매.

풍(波市風)’을 비롯해 트롯가수들이 장식하는 목포항 파시 음악회, 항구 불꽃쇼 등으로 축제의 서막을 펼친다.

성어기에 열리는 목포항구축제는 참조기, 병어, 민어 등 제철 수산물로 가득하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 처음 시도하는 할어 경매와 즉석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파시수랏간 회터와 구이터가 식도락가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먹갈치와 참조기, 병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한가득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최저가·최고가 경매행사인 ‘어생그랜드세일’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한선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선상경매 및 중매인 체험도 항구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삼학도 입구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낭만 정원카페’와 ‘목포항 낭만 열차’가 낭만과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선물한다. 거울아트, 트릭아트, 올해 처음 기획한 청춘창업 1897과 함께하는 드론 축구체험, 3D프린터체험, 그림자 극장, 장갑인형극, 평창올림픽 로봇물고기 체험, 맨손물고기잡기 체험, 도깨비의 목화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도 가득하다.

/전남 목포=김원우 기자 wonyoo9700@

인천시, 주거복지 향상 일환 ‘원도심 하우스링 닥터’ 실시

인천시는 동구 만석2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무료점검 서비스인 ‘원도심 하우스링 닥터’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링 닥터는 전문가 8개 단체가 노후 주택에 직접 찾아가 건축물을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려준다.

이번 점검대상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고 거주환경과 유지관리 개선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하우스링 닥터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ej@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스템 구축·운영

목포시, 홈페이지에 전용창구 개설

목포시는 창의와 참여로 시민에 의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청원제는 김종식 시장의 시민소통 정책 공약으로서 부적절한 정책이나 불편을 느끼는 시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온라인 시민청원제’는 목포시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 코너에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임시 개통했으며 10월 중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청원 추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00명 이상 지지를 얻을 경우 성립된다. 시는 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해 2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온라인으로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므로 청원대상은 시 주요정책, 불합리한 제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나 개선 요구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청원제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공익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실히 대답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 제안도 면밀히 검토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김원우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8 | 해질 / 18:15

10월 2일 (화) 음력 : 8월 23일

수도권 날씨 11 ~ 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21, 동두천 8/22, 가평 7/21, 파주 7/22, 서울 11/22, 양평 9/22, 인천 13/21, 수원 11/21, 용인 11/21, 평택 9/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도심이 공연장으로!” 서울광장, 거리예술 메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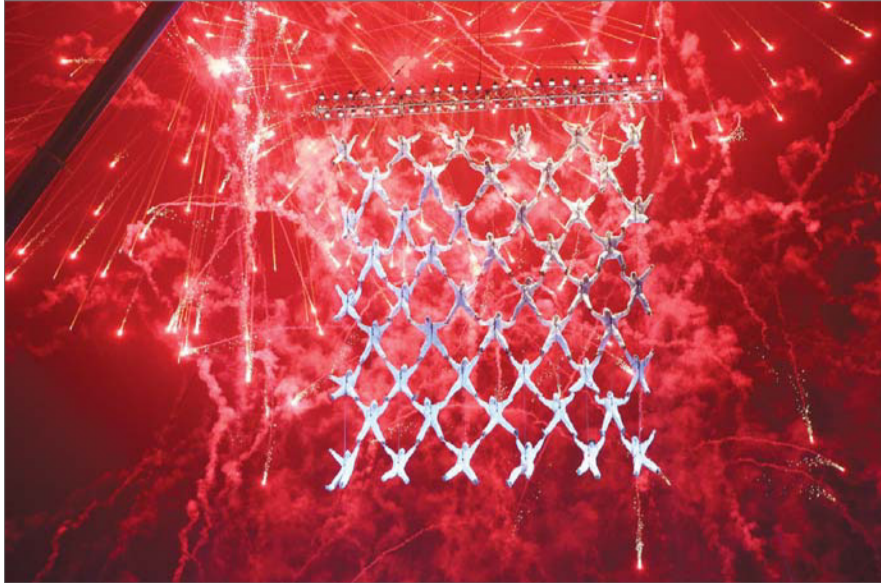
프랑스·스페인 등 10개국 참가
시민예술가 등 공연 구성 협력
트램펄린·서커스 등 볼거리 다양

서울 도심의 광장과 거리가 대형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돈의문 박물관 마을, 남산골 한옥 마을 등 시내 곳곳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축제에는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영국, 벨기에 등 10개국의 예술단체가 참여해 46편의 거리예술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 주제는 '따로, 또 같이'다. 국내외 참가팀과 시민예술가, 공동체 그룹, 일반시민이 협력해 공연을 구성하고, 각 공연이 하나의 줄기로 통일되는 유니버



서울거리예술축제 개막 프로그램 '휴먼 넷'.

[서울시

스 형식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김종석 예술감독은 “각자의 개성과 다

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축제 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연대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 ▲공식 초청작 33편(해외 12편, 국내 21편), 자유참가작 13편 ▲시민예술공작단 ▲자원활동가가 만드는 '길동이랑 놀자'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국제포럼 등이 준비됐다.

관람객들은 서울거리예술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해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오는 4~5일 서울광장에서는 200여명의 시민과 예술가들의 대형 공동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200여명의 시민이 만드는 '휴먼 라이트', 스페인 예술단체 '라 푸라텔 하우스'의 '휴먼 넷', 국내 예술단체 '창작중심 단다'의 '빛의 기억'이 유니버

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서관 앞에서는 거대한 트램펄린

으로 다이빙하는 이색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무용과 서커스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차가 사라진 세종대로 왕복 11차선 도로가 공연장으로 바뀐다.

대형 종이 상자로 도미노 만들기, 아스팔트에 분필로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구연동화 버스, 줄타기·저글링과 같은 서커스 체험 등이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사거리에서 대한문 앞까지 세종대로 500m 구간에 차량이 통제된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올해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 연인, 친구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붉게 물든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붉게 물든 칠면초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쉬운 '스트레스 없는 지하철' 재탄생

서울 지하철 2·4·5호선이 모여 있어 복잡했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환승 노선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지하철역'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을 도입,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을 적용한 지하철역으로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해 지하철역에 적용할 4개 테마의 디자인을 선정했다.

4개 테마는 ▲이용자 중심정보제공 ▲이용객 간 배려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질서 유지·안전 공지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편의·휴식 공간 제공 ▲지하철 내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에티켓 캠페인이다.

시는 지하철 이용 승객이 멀리서도 환승구간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환승구간 천정과 벽면, 바닥에 각 노선 색을 활용해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출구 근처 바닥에는 각 출입구까지 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 놓고 예상 소요 시간을 표기했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승·하차하는 시민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선으로 대기 라인을 그렸다.

이용객들이 물리는 칸에는 스크린 도어에 '여기는 사람이 물리는 칸입니다'라



는 문구를 적어 넣어 시민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환승과 열차 대기 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한 '워크·힐링존'을 만들었다. 광고판과 손잡이 등 역 곳곳에는 지하철 에티켓을 소개하는 캠페인 '에티켓과 모르쥬' 만화광고를 실었다.

서울시가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적용 전후 지하철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역사에서 해매는 시간이 6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크린 도어 앞에서 대기하는 시민 중 올바른 위치에서 기다린 사람 수도 평균 70% 이상 늘어났다.

김선수서울시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지하철역 사례처럼 일상에서 누구나 느끼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을 개발해 '디자인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다

2019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
법정 근로시간 적용면 월 212만원

서울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노동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시는 그동안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

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구조하에,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고육비 반영비율은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도입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 원 증가했다. 증가 소득의 50%가 순소비지출로 이어져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식변화를 보면, 생활임금은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

인 변화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인식이 나아졌다. 시민친절 인식 향상(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이미지 향상(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었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생활임금 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은 ±4.96%이다.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상상캠퍼스서 '마을공동체 한마당' 열린다

경기도 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이 '만나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활동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활동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와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천인정책장터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활동선언식 ▲마을체험장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20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사례, 마을구성원들의 변화된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동기, 위기극복 등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다. 상호평가를 통해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천인정책장터'는 시군별로 개최된 지역집담회와 광역단위 금요집담회에서 도출된 제안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안 판매

하는 부스다. 마을과 경제, 공간, 돌봄, 미디어,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1,000여명이 모여 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의 활동선언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천인정책장터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대표 정책을 소개하고, 마을상상댄스를 함께 추며 마을활동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체 정책부스 및 영상 상영전, 마을체험프로그램과 마을놀이, 마을퀴즈골든벨, 버스킹,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와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다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꽃축제는 지하철 타고”

서울시, 6일 여의도 일대 교통 통제

서울시는 6일 '2018 서울세계꽃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의도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지하철 운영을 늘린다 1일 밝혔다. /김현정 기자



[금융] 김지완 BNK금융 회장 지역뱅크 넘어 '글로벌' 04



[산업] 조현준 호성 회장 세계 섬유 1위 굳히기 06



1 한화손보 성남지역단이 서현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탐승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한화손보가 서울 용산서방사에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용산구 주민을 방문해 구호물품과 임시주거비를 지원했다. 3 한화손보 대구지역 임직원 및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봉사자들이 대구 동구 지역의 재난위기가정에 방문해 구호물품 전달과 벽지, 바닥, 방충망 등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4 한화손해보험 2017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경로당을 찾아 'DIY 가구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손보

재난위기 가정 돕고 안전교육도 꼼꼼하게 소외계층 보듬는 35개 봉사단 “보험은 안전&사랑 실천”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손보사의 역할에 맞는 사회공헌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손보의 주요상품인 자동차·화재·주택보험 등에 맞게 '집짓기 봉사활동'이나 '대학생 안전운전 체험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365'를 실시하고 있는 것. 특히 한화손보는 전국에 35개의 봉사단을 구성, 지역단별 1개 이상의 기관과 연간 협약을 체결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한화손보는 영업가족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봉사단을 구성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학생봉사단원들과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부산 등의 지방권역에는 '재난위기가정 환경개선' 활동을, 서울시에는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한화손보 재난봉사단 25명은 대학생 봉사단 65명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추천한 재난위기 가정 9개 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재난위기 가정 9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작업등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봉사단원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해 집수리 자원 봉사자와 함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열감지 화재경보기도 설치했다.

자동차 안전·화재·주거공간 등 손보사 역할 맞는 사회공헌 펼쳐

침수 등 재난 노출된 가정 집수리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진행 대학생 위한 바른 운전습관 교육

경로당 방문해 가구 조립 돕고 저소득층 어르신 위해 밥차 운영

한화손보 재난봉사단은 재난현장에서 잔존물 제거 및 청소, 기초생활품 지원, 재해 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과 재난 현장에서의 보상처리 방법, 잔존물 처리방법 안내 및 건강상담 등의 봉사활동 등 역할을 담당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회사는 손해보험이란 업의 본질에 맞춰 2015년 광역시 재난위기 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역사회의 재난 피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생까지 폭넓은 안전교육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린이다. 한화손보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먼저 한화손보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안전체험 한마당'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올해로 12회째다.

지난해 4월에 실시된 '2017서울안전체험 한마당'에서는 재난안전을 비롯해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테마 8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화손보의 특화사업으로 손꼽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365'는 국제 어린이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한화손보는 안산 조은지역아동센터와 서울 젠마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함께 안전365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아이들은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과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제 소방관의 교육을 받아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은 재난을 체험하고 4D 애니메이션 관람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배웠다. 아이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재난대피를 해보며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던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생을 위한 안전교육도 진행된다. 한화손보는 면허를 처음 취득한 대학생에게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실습교육으로 국민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키우겠다는 취지의 사회공헌 활동인 '세이프드라이빙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차도리와 함께하는 세이프드라이빙챌린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차량 특성의 이해와 일상 점검 요령 ▲타이어의 이해 ▲올바른 운전자세 등 이론 교육 등 안전운전 기술을 다지는 체험 교육으로 구성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렌터카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1~30세 초보 면허 대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31.4%에 이른다. 또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초보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초보면허를 취득한 대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표부터 신입직원까지 봉사활동

한화손보는 지난 2005년부터 '사회공헌 운영지침'을 내규화하고 유급자원봉사제도·휴가 제도·우수자원봉사자 시상제도를 마련해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1월 한화손보에 입사한 신입사원 29명은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경로당 다섯 군데를 방문해 'DIY 가구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발장, 서랍장, 식탁 세트 등 총 8조를 조립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한화손보 박윤식 사장은 단장으로 전국에 38개의 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한화손보 박 사장은 소비자평가단, 임직원봉사단 50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련한 이 행사에서 한화손보 소비자평가단과 임직원은 밥과 국, 꼬치전, 부추잡채, 편육, 수정과 등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든 후 회사에서 준비한 밥차를 이용해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했다. 소비자평가단은 매년 1회 대표이사과 함께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은 모금한 후원금에 비례해 그 금액의 150%를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모금제도를 도입해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